

연구보고서 2016-44-07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이윤석 · 김필숙 · 심규선

【책임연구자】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주요 저서】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15(공저)

서울시 외국인 주거실태 조사 기획연구
서울시, 2015(공저)

【공동연구진】

김필숙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심규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44-07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발 행 일 2016년 12월 31일

저 자 이 윤 석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가 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416-9 93330

제출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한국사회학회 회장

조 성 남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내용	13
제3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	19
제2절 관련 가치관의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	28
제3장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	41
제1절 자료 및 변수	43
제2절 연구방법	45
제3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5
제4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출산 및 가치관 변화	47
제5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가치관과 임신 여부	52
제4장 21세기 이후 가치관의 변화 추이	81
제1절 자료 및 변수	83
제2절 연구방법	84
제3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5

제4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89
제5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101
제5장 결 론	113
제1절 연구의 요약	115
제2절 연구의 함의	119
참고문헌	125

표 목차

〈표 3-1〉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6
〈표 3-2〉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53
〈표 3-3〉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취업 여부 ..	54
〈표 3-4〉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녀 수	56
〈표 3-5〉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전체	58
〈표 3-6〉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취업 여부	59
〈표 3-7〉 결혼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61
〈표 3-8〉 자녀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62
〈표 3-9〉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전체	64
〈표 3-10〉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취업 여부	66
〈표 3-11〉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69
〈표 3-12〉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전체	73
〈표 3-13〉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취업 여부	75
〈표 3-14〉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77
〈표 4-1〉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6
〈표 4-2〉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도별	88
〈표 4-3〉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90
〈표 4-4〉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전체	94
〈표 4-5〉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취업 여부	97
〈표 4-6〉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수	99
〈표 4-7〉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103
〈표 4-8〉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전체	105
〈표 4-9〉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취업 여부	107
〈표 4-10〉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자녀 수	110

그림 목차

[그림 3-1] 기혼 여성의 4년간 출산 자녀 수	48
[그림 3-2] 기혼 여성의 4년간 임신 횟수	48
[그림 3-3]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49
[그림 3-4] 기혼 여성의 가족 역할 가치관	50
[그림 3-5] 기혼 여성의 가족 부양 가치관	51
[그림 4-1]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변화	90
[그림 4-2]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분포	91
[그림 4-3]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회귀분석에서 연도별 계수 변화	95
[그림 4-4]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가치관 변화	98
[그림 4-5] 기혼 여성의 자녀 수에 따른 결혼 가치관 변화	100
[그림 4-6]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 가치관 변화	102
[그림 4-7]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 가치관 분포	103
[그림 4-8]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회귀분석에서 연도별 계수 변화	106
[그림 4-9]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 가치관 변화	108
[그림 4-10] 기혼 여성의 자녀 수에 따른 자녀 가치관 변화	111

Abstract <<

Macro-Micro Approaches to Attitudes and Fertility in Korea

The idea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has gained ground among demographers who are interested in low fertility levels in developed countries. This perspective insists that people have more individualized attitudes about their life events such as careers, marriage and children. As they place more values on their own hopes and preferences, they tend to delay or avoid marriages and give less births. This study examines possible application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by 1)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about marriage, children and gender roles and later childbearing behaviors and 2) tracking down the trends in attitudes about marriage and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finds that how married women view marriage and children matters in their decisions about pregnancy and notices a recent large drop in the absoluteness of marriage even among married women, those who may be so favorable toward marriage. This study indicates that policies toward low fertility levels should pay attention to our perspectives about not just children but also competing events in life.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이후 한국은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해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출산력에 대한 변화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결혼 및 자녀 등 전통적인 가치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시기에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기 실시된 자료들을 모두 이용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통시적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치관과 실제 출산행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둘째, 2000년 이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1세기 이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 자녀 수, 가구소득, 학력은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출산

4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이 출산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또한 수입이 많을수록 이후 4년간 임신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러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출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2000년 이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1세기 이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혼 여성들의 결혼 가치관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이러한 경향과 달리 2015년 현재 결혼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투입하자 기혼 여성의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취업은 결혼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녀 수의 경우 0명, 1명, 2명인 경우 결혼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결혼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면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자 이러한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기혼 여성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한 기혼 여성은 전업주부와 달리 자녀 가치관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3. 결론 및 시사점

여성가족패널과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들의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확연하게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동시에 자녀에 대한 태도는 매우 모호한 것으로 가족 관련 다양한 태도들은 21세기 들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제는 정책적으로 가족, 결혼, 자녀 등 포괄적 가치관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자녀를 한 명 갖고 있는 기혼 여성들은 저출산 정책당국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단순히 출산 영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어쩌면 사회적 모순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일 수 있다.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관심을 더 이상 출산에만 한정하지 말고 삶의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용어: 저출산,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이후 한국은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00년 1.46이었던 합계출산력은 2005년 1.07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2년 1.29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5년 1.2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2016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5월까지 신생아 수는 18만 2,300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까지보다 1만 200명 정도가 적다고 한다(통계청, 2016). 2016년은 2015년 수준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0년 이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그간 얼마나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적게는 60조 원에서 많게는 150조 원이라는 의견도 있다. 150조 원 주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2005년 9월 출산력과 고령화 현상을 다루기 위해 출범한 이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실시된 모든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예산을 다 합한 금액이 150조 원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그리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진행되었다. 반면 60조 원이라는 의견은 150조 원 중 가족 또는 육아정책 등 출산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 예산만이 저출산 관련 예산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어디까지를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매우 많은 돈이 출산력 증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쓰여 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난 10년간 저출산 정책은 정책 목표 달성에 미흡했다. 이에 현 정부는 지난 10년을 반성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포괄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2015년 연말에 발표하였다. 우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혼인율을 견인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낮추고,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 부분을 감소시키고, 아버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

큰 예산이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이전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많은 관련 정책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몇몇 학자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다.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본계획이 출산력을 둘러싼 거대한 사회변화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학자들은 대체로 출산력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 생각한다. 제1단계에서는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양육비용이 들어가서 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그만두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2단계에서는 결혼, 자녀 등 전통적인 삶의 과정에 대해 회의를 품고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주요 원인이 된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중시하는 여성들이 직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제2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고,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과연 출산력이 반등하겠느냐는 우려와 걱정이다.

사실 관련 기관에서는 가치관 변화와 출산력의 하락에 대해 이미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기혼 및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이삼식 등, 2015). 그뿐만 아니라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통해 결혼 및 자녀 가치관, 가족 가치관 등 다양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출산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김승권 등, 2012). 이런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가치관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210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은 44세 이하 성인들 중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은 7.7%, 남성은 18.1%이다. 이들 중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은 29.5%이며 남성은 17.5%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가치관과 출산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자녀를 적게 낳는다. 또한 미혼 남녀의 가치관 변화는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49.2%에서 2009년 63.2%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조사 결과 56.7%로 결혼의 필요성은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 남성의 경우 2005년 71.4%, 2009년 69.8%, 2012년 67.5%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의향은 매년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 가치관에 여성보다 남성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등, 2012). 미혼 남녀(20~44세)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출산 및 자녀에 대한 욕구는 미혼 여성의 경우 2005년 24.3%에서 2009년 24.0%로 다소 감소하였고, 미

혼 남성의 경우 2005년 54.4%에서 2009년 42.1%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삼식 등, 2009). 미혼 남녀들의 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태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화 또는 개인주의 가치관 변화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무자녀 가족도 증가하고 있다(이민아, 2013).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미혼 남녀의 결혼 이행을 높인다면(이삼식, 2006), 이러한 가치관 변화가 미혼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 또는 보완점들이 있다. 첫째,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종단면적(longitudinal)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횡단면적(cross-sectional)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두 변수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횡단면적 자료를 사용한 분석이 두 변수 사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가치관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더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동시에 출산을 한 여성들이 특정 가치관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낳고 난 여성들이 자녀의 가치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둘째, 횡단면적 자료 사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 연구들이 실제 출산행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지 않고 출산의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특정 조사 시기 이후를 알 수 없는 횡단면적 자료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물론 많은 연구들이 출산 의도가 있는 여성들이 그 이후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Dommermuth, Klobas, and Lappegard 2015). 그렇지만 의도와 행위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 결론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셋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은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만 이 자료들을 모두 살펴봐서 통시적 변화에 주목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인구학자들은 이미 한국은 출산력 변화에 있어서 제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기 실시된 자료들을 모두 이용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통시적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앞에서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 및 보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경험적으로 연구해본다.

먼저, 실제로 가치관이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전 연구들이 횡단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치관과 출산의도의 관계를 연구한 데 비해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치관과 실제 출산행위의 관계를 연구한다.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가 그 이후 실제 임신을 하는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기혼 여성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1세기 이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해 본다. 이를 통해 과연 한국의 기혼 여성들이 출산력 변화에 있어서 제2단계로 접어들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동

안 많은 예산을 들여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기존 방향을 확대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남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모두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만약 여성들이 결혼과 자녀에 대해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사회적 참여를 중시하고 가족과 가정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면 신혼집 마련과 출산 부담 경감 등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가 출산 행위에 있어서 가치관의 중요성을 밝혀낸다면 그리고 출산 관련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하는, 다시 말해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을 미시 및 거시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저출산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가치관과 출산을 관계 변화에 있어 거시 및 미시적 요인 등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 행위에 영향을 줄만한 가치관을 찾아본다. 또한 가치관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한 다른 나라의 연구를 살펴보고 자료 및 방법의 선택, 결과의 해석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도록 한다.

둘째,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 및 미시적 차원에서 가치관과 출산의 형태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5차까지 진행된 여성가족패널 조사를 이용한다. 아쉽게도 여성가족패널 자료에서는 출산행위에 영향을 줄만한 가치관 관련 문항을 3차에서부터 포함시켰다. 그래서 제3차 조사

에서 가치관 문항을 뽑아내고 제3차에서 제5차까지 사이 임신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셋째, 2000년 이후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에 실시된 전국 출산력 조사를 이용한다. 각 조사에서 가임기에 있는 기혼 여성들의 응답을 뽑아서 지난 15년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 결과가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본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제2절 관련 가치관의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

제1절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

가치관과 출산력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이론은 (a)제2차 인구변천 이론(Lesthaeghe and van de Kaa 1986)과 (b) Fishbein과 Ajzen의 계획된 행동(planned behaviors) 이론(Fishbein and Ajzen 1975; Ajzen and Fishbein 1980)이다. 전자는 보다 사회학적 관점에 근거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 심리학에 더 가깝다. 다시 말해서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사회적 수준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데 비해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의 결정을 이해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이 때문에 두 이론은 가치관과 출산에 있어 미시와 거시 수준의 변화를 연결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체계이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의 핵심 개념이 가치 지향인 반면, Fishbein과 Ajzen의 모형에서는 태도와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첫눈에 보기에는 두 이론을 연결하는 시도는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사회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치 지향 개념이 사회 심리학에서 ‘일반화 된’ 태도라고 부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제2차 인구변천 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의 개념은 1986년 네덜란드의 Lesthaeghe와 van de Kaa의 논문에서 맨 처음 소개되었다. 이 개념의 단초는 이미 이

전 작업(Lesthaeghe, 1980, 1983; van de Kaa, 1980, 1985)에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후속 연구(Lesthaeghe and Surkyn, 1988; Lesthaeghe, 1994; Lesthaeghe and Moors, 1996; van de Kaa, 1994)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다듬어져 왔다. 이 이론의 핵심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부터 관찰되고 그 이후 지속되어 온 생활 형태에서의 인구학적 변화가 곧 특정한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 가치는 세속적, 반권위적, 평등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하며, 자기 실현, 가치 표현, 자기 인식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다. 이 이론의 증명을 위해 경험연구에서는 두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첫째, 가치는 중요한가?(Lesthaeghe and Moors, 1994), 둘째,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Lesthaeghe and Surkyn, 2004)이다. 가치와 제2차 인구변천 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Lesthaeghe와 Surkyn(2004)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속화, 정치적 신좌파, 평등주의, 시민 윤리 및 도덕성, 가치 표현, 동료 의식을 강조하는 결혼 윤리 등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몇 가지 인구학적 변화를 유인해 냈다는 점이다. 여기서 꼭 지적해야 할 점은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오로지 가치로만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치가 다른 설명 방식들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Lesthaeghe, 2001).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가치들이 인구학적 변화를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주장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이 1990년과 1999년에 실시된 대규모 국제 설문 조사인 유럽 가치 연구(European Values Studies)에 다수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들은 Lesthaeghe and Moors(2002)가 가치 및 생활 형태에 있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의 발자국이라고 지칭한 것들

을 보여 준다. 이 연구들이 발자국을 제공한다고 지칭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가치와 인구학적 행동 간의 연관성을 보여 줄 뿐이고, 가치가 그 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거꾸로 행동이 가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oors, 2000). 횡단면적 자료로는 두 변수간 원인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본 보고서는 출산 현상으로 전이되기 전에 측정한 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전 연구는 가치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요인 분석이나 거트만 척도를 사용한 차원적 접근법을 이용하거나(Lesthaeghe and Meekers, 1986; Lesthaeghe and Moors, 1996), 많은 수의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잠재적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 요인 접근법을 이용하거나(Lesthaeghe and Surkyn, 1988), 인구학적 특성과 광범위한 일련의 태도 항목들 간의 유사성을 찾는 반복 단일 항목 분석법을 활용한다(Lesthaeghe and Surkyn, 2004). 이들 방식들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주요 초점을 항목의 내용에 맞추어 태도와 인구학적 행동 간의 연관성 패턴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찾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한 통합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개인들 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방법에서는 태도 프로파일(attitude profile)에서 차이를 보이는 뚜렷한 인구 분포 집단을 파악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의미가 있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으로 묘사되는 태도 프로파일을 갖는 인구 분포 집단이 있는가?

2. 계획된 행위 이론(planned behavior theory)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서는 광범위한 태도와 가치를 강조하며 60년대 말 이후로 젊은 성인의 생활 형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가치관에 주목했다. 반면 Fishbein과 Ajzen이 주창한 계획된 행위 이론은 보다 구체적인 태도를 언급한다. Ajzen은 태도를 ‘사물, 사람, 제도 또는 사건에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대응’ 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한다(1988, p.4). 특정 행동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의도는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태도라는 개념에 훨씬 더 초점이 모아지고, 연구 대상은 전체 사회 또는 특정 집단이 아닌 특정 행동의 주체로서의 개인으로 범위가 좁혀진다. 모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주로 모성과 가족 계획에 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Vinokur-Kaplan, 1978). 그러나 Barber(2001)가 덧붙인 것처럼 Fishbein과 Ajzen의 틀은 교육, 일, 소비 행동과 같은 대안적 또는 대립적 행동을 의미하는 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 여가 활동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Barber(2001)는 우리의 행동 선택이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제한을 받으므로 이러한 대안적 행동에 대한 태도가 결국 관련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다른 역할과 동시에 엄마와 같은 특정 역할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역할 참여가 언제나 역할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역할 증대 관점(Jackson, 1997)은 다중 역할에는 개인적 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이점은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Ahrens and Ryff, 2006도 참조). Moen 등(1989, 1992)의 연구는 더 적은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게서 더 양호한 건강 상태와 장수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직업적 역할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과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Fishbein과 Ajzen 틀을 확장시킴으로써, 자녀, 결혼, 직업, 자기실현 및 개인적 자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질문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전체 인

구 내 하위 집단에 주목하면서 다른 방식의 질문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모성으로의 전이가 더 쉬운가? 쾌락주의적인 사람들은 모성으로의 전이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가? 또는 인생에 있어 부모 역할보다 다른 역할을 선호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충분하다면 모성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가치관과 출산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자녀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어떤 가치관까지 경험적 연구에 포함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일반적 태도 등을 주로 주목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 살펴해보자.

3.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최근 수십 년간 행동 규범에 대한 순응이 줄어들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강조가 증가했으며, 관용이라는 규범이 등장했다 (Thornton, 1989). 이러한 변화는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개인주의적 개념의 확산과 특히 가족 행동에 대한 보다 개인주의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Lesthaeghe, 2002; Lesthaeghe and Surkyn, 1988).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변화를 법률 체계, 성, 육아, 정치 등 삶의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관찰할 수 있다. 법률 체계의 경우 Schneider(1985)는 도덕적 책임이 사회에서 개인으로 넘어가고, 가족법에 있어서 도덕적 담화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 및 자유를 더 많이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lwin은 양육 가치에 있

어서 비슷한 경향을 관찰하고 있다. 1924년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는 아이들에게 복종을 덜 요구하고, 관용적이고 자율적이기를 더 바라게 되었다(Alwin, 1988, 1996). Bahr, Mitchell, Li, Walker 그리고 Sucher(2004)는 1924년 이래로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부모를 원하는 욕구가 늘어났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모와 아이들 모두 아이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음을 시사한다(Bahr et al., 2004). 1960년대의 성 혁명 역시 개인적 자유에 대한 강조가 증가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이다. 정치에서는 여성 운동 및 시민권 운동과 같은 중요한 사회 운동이 비슷한 울림을 갖는다.

이러한 거시적 수준의 일반적인 변화는 가족 형성의 태도 및 신념에도 거시적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다. 태도에 대한 우리의 경험적 증거는 1950년대 말에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 보다 자세해진다. 이러한 증거는 가족 구성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경향 즉, 행동상의 경향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반영한다.

결혼 관련 태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1957년에서 1976년 사이에 독신 생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크게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다(Veroff, Douvan and Kulka, 1976). Veroff와 동료들은 1957년에는 53%의 성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졌으나, 1976년에는 단지 34%의 성인들만이 독신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이 밀접하게 연관된 태도들을 분석한 결과, 1957년에서 1976년까지의 기간 동안 결혼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여기고 독신 생활에 대해서는 더 관용적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결혼에 대한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Monitoring the Future 연구는 응답자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

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라는 문장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보았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결혼에 대해 갖는 태도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1990년대에는 58.5%의 여성이 결혼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데 찬성했고, 1970년대에는 59.5%의 여성들이 동일하게 느꼈다. 남성들 역시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데 찬성한 사람들의 비율이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약간 증가했다(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다른 연구 조사에서 나타난 결혼에 대한 태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여 준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Monitoring the Future 조사에서 ‘요즘은 좋은 결혼은 드물다’라는 문장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은 남성, 여성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마찬가지로 Monitoring the Future 연구에 참여하여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배우자를 갖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젊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으며(1998년의 경우 여성 82%, 남성 72%),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정리해서 말하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출산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결혼이 아이를 갖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Monitoring the Future 연구에 따르면 ‘비혼 출산(unmarried childbearing)은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믿는 여성들의 비율이 1970년대 중반(23%)에 비해 1990년대 중반(15%)에 이르러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 준다. 동일한 믿음을 갖는 남성들의 비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혼외 출산에 붙이는 부정적 낙인도 최근 수십 년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Schulenberg et al., 1995). 이러한 결과는 Ku 등(1988)의 연구 결과와 매우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 친구의 임신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에 대해 물었다. 1979년에서 1995년 사이에 결혼, 임신 중절, 입양을 권하는 비율은 모두 크게 감소한 반면, 엄마가 아기를 낳고 아빠가 아이의 부양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19%에서 59%로 크게 증가했다. 비혼 출산을 부양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Pagnini와 Rindfuss(1993)의 연구에 의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

결혼 후 부모가 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1960년대 이후 크게 변화했다. 세대 간 패널 연구의 엄마 표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혼 부부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에 찬성하는 여성의 비율은 1962년 85%에서 1980년 43%로 감소하였다(Thornton, 1989). 또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이 명제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세대 간 패널 연구의 자녀 세대 표본 조사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명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 준다(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이는 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밀접하게 연관된 행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해 왔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결혼이 아이를 낳기 위한 유일하게 적절한 사회적 관계라고 믿는 경향이 감소하고 있으며, 아이를 갖는 것이 결혼 관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는 경향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가 결혼의 의미에 있어 중

요한 변화이다. 결혼의 의미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가 근본적으로 결혼과 밀접하게 묶여 있다고 보는 경향도 줄어들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이후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보다 평등주의적이 되며, 1990년대 후반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평등 관계 및 평등 사회가 뒷받침 되어 안정기를 이루게 되었다(Thornton, Alwin and Camburn, 1983; 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역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크게 수용적이 되었다(Thornton, 1989). 혼외정사에 대한 수용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증가했으나, 그 이후 20년간은 감소하여, 92.9%의 여성과 89.2%의 남성이 혼외정사는 ‘항상 나쁘다’ 또는 ‘거의 항상 나쁘다’라고 응답했다(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가족은 미국에서 여전히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 제도이다. 둘째, 다양한 가족 유형과 전이에 대한 수용이 증가했다. 따라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평생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계획한다. 이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서 가족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수십 년간 미국에서는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 혼전 성 관계와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 등 다른 태도들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나타냈다.

아마도 이러한 거시적 수준의 태도 변화는 거시적 수준의 행동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거시적 수준에서 개념적 경향과 행동적 경향을 연결시킴으로써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대신 이제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태도 변화와 행동 변화의 가능한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제2절 관련 가치관의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

1. 가치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설명

가족 관련 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추측된다. 첫째, 가족 관련 태도는 코호트의 계승을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방식은 코호트 대체로도 불리는데, 이는 어린 시절 학습을 강조한다. 각 개인들은 특정한 연도에 출생하며 인격 형성에 중요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역사적 환경에서 살게 되고, 이것은 세대별로 다른 규범적 방향성을 만들게 된다(Alwin and Scott, 1996; Inglehart, 1981; Kraaykamp, 2002). 이렇게 특정한 시대에 살게 되면 일생을 통한 사회화가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태도는 변화에 저항하며, 안정적인 사회정치적 성향을 확고하게 만들어낸다(Alwin, 1990; Alwin and krosnick, 1991; Glenn, 1977; Inglehart and Baker, 2000). 각 세대가 성숙해가는 과정 전체는 코호트간 계승을 통한 자연적 과정을 통해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 준다. 성숙해진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은 죽게 되고 좀 더 젊은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대체된다. 젊은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더 평등한 성역할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의 과정은 가족 간의 역할에 대한 태도에서 좀 더 평등한 태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Brewster and Padavic, 2000; Brooks and Bolzendahl, 2004; Mason and Lu, 1988; Neve, 1995). 가족 역할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평등주의적 가족 역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의미가 있는데 성역할이 평등해짐으로써 여성들이 더 이익을 보기 때문이며, 따라서 좀 더 평등한 가족 역할로 나아가는 코호트 상호간의 발전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서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가족 역할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동력은 사회구조적 접근이다(Brooks and Bolzendahl, 2004).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발전이 모든 코호트의 태도 변화를 주도한다(Alwin and Scott, 1996; Danigelis et al., 2007). 코호트 계승과는 달리 이 기간 효과에 대한 관점은 모든 성인들이 소위 사회적·구조적 조건, 즉, 사회인구적, 경제적, 역사적 발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태도 변화에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적 조건과 더불어, Brooks와 Bolzendahl(2004)는 이데올로기적 학습을 코호트 내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평등한 가족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변화이다. 이는 사회문화적 접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일어난 구조적·문화적 발전은 가족 관계에서 양성평등이 발전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 감소, 여성의 출산연령 증가, 교육확대와 여성의 노동참여 등이 가족 내에서 상황을 다양하게 바꾸었다고 믿는다(Brewster and Padavic, 2000; Mason and Lu, 1988). 그 후 이혼의 위험부담이 증가하고, 그들의 인적 자본이 증가하고, 집에서 양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어 여성 평등을 따르려면 여성들에게 더 고비용이 되었다. 따라서 기간 효과가 여성들로 하여금 다년간에 걸쳐 가족 역할에 대한 평등한 견해를 지지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다. 남자들은 가사 노동 분업에 대해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가족 관계에 대해 더 평등한 견해를 가지게 된 것은 좀 더 느린 속도로 일어났을 것이다(Bolzendahl and Myers, 2004; Mason and Lu, 1988).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들이 가족 역할 태도를 바꿈에 따라 그에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결국 남성들이 여

성의 역할에 대해 비평등한 견해를 계속 고수하면, 가족 내부에 심각한 불일치가 일어나 부부의 결혼 생활의 질을 낮출 수도 있다(Kalmijn, 2005). 그러한 면에서 여성의 태도 변화는 남성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했을 수 있다.

태도에 있어 코호트 간 대체와 기간 효과를 연구하는 데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다. 최근의 연구는 태도 변화 연구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Alwin and Scott, 1996; Brewster and Padavic, 2000; Brooks and Bolzendahl, 2004; Danigelis et al., 2007; Neve, 1995) Firebaugh(1989)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간 효과(intra-cohort)를 측정한 연도와 그 연구가 진행된 연도수를 곱한 값으로 표시된다. 코호트 대체의 측정은 출생 코호트의 효과와 조사가 행해진 연도의 출생 코호트 평균값에서 첫 번째 조사한 연도의 출생 코호트 값을 뺀 값을 곱해서 계산한다.

2. 가치관 변화의 과정: 미국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학적으로 사회적 수준의 가치관 변화는 코호트 효과와 기간 효과 입장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입장에서 출발해서 많은 학자들의 국가적 수준에서의 가치관 변화를 연구하였다. 몇몇 국가의 예는 한국의 가치관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주요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아마도 가치관 변화가 가장 많이 연구된 국가는 미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

가족 역할이란 가족과 사회에서 성역할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나누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다(Kalmijn, 2005). Scott과 그의 동료(1996)들은 그러한 태도는 사람들이 삶의 구조적 조건 때문에 생기

는 기회와 제약에 반응하는 잠재적 경향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교육, 고용, 결혼 등 주요한 삶의 사건에 대한 경험은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 가족 역할태도를 변화 시킨다(Cunningham et al., 2005; Thornton and Young-DeMarco, 2001).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주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 풀타임으로 일하는 주부는 서로 가족 역할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Bolzendahl and Myers, 2004).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실제적인 근무 시간에 따라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의견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적 갈등을 일으켜, 믿음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Cooper and Croyle, 1984). 심리적 불일치 이론에 근거하여,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적 갈등은 고용이나 가족 역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고용 환경과 그들의 현재 고용상황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가족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바꾸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역할 태도가 점차 평등하게 달라져갔다.

미국에서는 가족 관계에 대한 태도도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그 과정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Poortman and Van der Lippe, 2009). 일반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이나 일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평등한 가족 역할을 더 선호한다 (Hakim, 2000, 2002).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이 가지는 재정적·심리적인 보상 때문에 일에 대한 의무를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대부분 가족이 관련된 보상이 우선시되며, 따라서 좀 더 가족 역할에서 성차별적 관점을 가지게 된다 (Cunningham et al., 2005; Hakim, 2000).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과 다소 상반된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남성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남성

들보다 좀 더 성차별적인 가족 역할을 지지할 수 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남성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족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대해서는 훨씬 덜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남성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남성들보다 더 평등한 가족 역할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미국 연구에서 지적할 점은 태도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그 방향과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결혼 상태는 가족 역할의 선호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준다. 결혼한 남성과 여성은 독신, 사별, 혹은 이혼한 사람들 보다 더 비평등한 의견을 갖고 있다(Brooks and Bolzendahl, 2004; Biecolt and Acock, 1988).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개인적이고 가족 내에서 다양한 분업의 책임에 대해 덜 반응한다. 따라서 그들은 유급과 무급 노동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강조하는 태도에 더 집착할 수 있다(Mason and Lu, 1988). 미취학 아동은 주부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Klossfeld and Hakim, 2007; Van Gils and Kraaykamp, 2008). 따라서,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집의 부모는 아동이 없는 가정보다 더 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종교적 차이이다. 종교는 취업 주부와 가족 책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견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종교 기관들은 여성이 유급으로 노동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며, 적어도 이것은 가족의 삶에는 해롭다고 생각한다(Bolzendahl and Myers, 2004; Hertel and Hughes, 1987). 종교적 삶을 영위하는 것(교회에 가는 등)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종교에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평등한 가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중 교육 수준은 가족 역할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학교 교육은 사람의 가치 기준을 만들며, 사회정치적 이해를 증가시키고 일반적 지식을 확장시킨다(Hyamn and Wright, 1979; Kalmijn and Kraaykamp, 2007; Pascarella and Terenzini, 1991).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평등한 가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 연구들은 이를 입증한다(Brooks and Bolzendahl, 2004; Kroska and Elman, 2009; Rindfuss et al., 1996).

3. 가치관 변화의 과정: 일본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40여 년 동안 교육 수준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서비스 직업 증가, 제조업의 개도국으로의 이동, 직업 안정성의 약화, 임금 저하, 각종 혜택의 감소 등도 동시에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성인층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압박을 주었고, 가족 내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가족 행동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혼전 성관계, 동거의 증가, 혼외 임신, 이혼율 증가 등이다.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제도적 변화와 가족 행동에서의 변화는 가족 형성과 성평등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행동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사회 관계망과 언론 등과 함께 개인들이 가족 행동의 변화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Rindfuss et al., 2004).

이러한 제도와 가족 변화에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들이 사회적 관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태도에 관련된 거시적 미시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사회 인구학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전적인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 교육, 나이, 성, 종교, 소득이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태도가 영향을 끼치는 필터로서 작용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 자체가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비전통적 가족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구조의 또 다른 의미는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는데, 이것은 개인 간, 가구 간, 혹은 다른 사회적 단위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이 상호작용은 친족 간 연결, 직장, 우정 등과 같은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 오늘날 다양한 통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는 지역적이며, 따라서 도시/마을, 주/지방, 그리고 국가에 국한된다. 최근 사회적 관계망 이론은 사회 인구학적 연구 영역에 포함된다.

다른 사회적 제도의 변화가 일본에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규범, 가치, 역할 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에 있어 더 높은 교육 수준과 견습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결혼 연령(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늦추었으며 부모가 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사회에는 늘 비전통적인 가족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숫자는 적지만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된다. 다른 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많은 개인들은 비전통적 가족 행동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비전통적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떻게 동거가 가능한가?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은가? 엄마는 일과 양육 사이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판단이 덜 부정적이거나 혹은 심지어 긍정적인일 경우, 사람들

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다. 태도의 변화는 가치 풍조를 변화 시킴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피드백을 만들 수 있다. 행동의 변화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시적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이는 가족 제도 전반에서 거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적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일본의 저출산 함정(low-fertility trap) 가설을 주장한 Lutz, Wolfgang, Skirbekk 그리고 Testa(2006) 연구와 일치한다. 그들은 저출산이 길어지면(TFR below 1.5) 어떤 세대는 부모가 되지 않은 성인, 혹은 오직 한 명의 자녀만 있는 성인들을 보고 자란 세대가 나타난다. 그들은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저출산을 선호하게 된다.

4. 가치관 변화의 과정: 중국

중국에서도 각 시대별로 여러 부문에서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 관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Shu, 2004). 1950년대 시작한 여성의 결혼에 대한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인정이 1990년대에 거의 완성되었으나(Shu, 2004), 남아 선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성비로 볼 때 1980년대 이후 강화되었다(Coale and Banister, 1994; Guilimoto, 2009; Gupta et al., 2003). 여성의 취업 기회의 평등에 대한 태도와 성적 자유에 대한 진보적 관점은 이후에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Shu, 2004).

이러한 거대한 중국의 변화는 코호트와 역사적 변화를 통해 이뤄졌다. 역사적인 기간, 출생 코호트, 그리고 사회적 문맥은 폭넓은 사회화 경험

의 지표들이며 이를 통해 개인들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Davis and Greenstein, 2009). 여성의 지위와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은 사회학습을 통해 유포되며, 개인들의 사회연결망에 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들의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치우친 정보를 받아들이고, 비슷한 믿음을 가진 데 대한 보상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맥은 출생 코호트와 역사적 시기에 따라 중요하게 달라진다.

성역할에 대한 기간 효과는 대부분 역사적 사건이나 전체 인구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에 근거한다(Brewster and Padavic, 2000; Mason and Lu, 1988). 같은 역사적 사건에 노출되거나 혹은 사회적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가치 방향성에 있어서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 또 다른 역사적 원동력은 코호트 대체라는 인구학적 과정이다. 각 출생 코호트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사건을 인격 형성기에 맞게 되고, 그들의 고유한 사회화 경험 때문에 태도, 믿음, 가치 등에서 달라진다. 태도 변화는 인구학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한번 만들어진 태도는 개인들이 사회 제도에 통합되면서 더욱 확고해지며, 새로운 코호트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게 된다.

전통적인 중국의 가족이나 사회적 삶에서 여성은 남성에 열등하다고 여겨졌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가족이란 여성을 부부의 일부, 가부장적이며, 가부장적인 친족 네트워크 속에 있는 가정의 영역에 제한시킴으로써 남성 위주의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잠재적 사회 제도이다(Stacey, 1983). 삶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은 그들의 남성 친인척에게 기대어 살기를 기대한다. 딸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부인들은 남편에 순종하며, 미망인은 성인이 된 아들에 순종한다. 이와 같은 종속관계는 여성들로부터 집 밖에서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가부장적 가족 시스템은 1950년대 빠른 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약화되었다. 국가는 법령, 공공정책, 구조적 개혁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했으며, 새로운 사회규범을 만들었다(Honig and Hershat, 1988). 중국에서 성역할 평등론으로의 변화는 다른 부분보다 더 빨리 더 큰 범위로 일어났다.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출생 코호트는 인격 형성기에 한 경험의 차이 때문에 다른 성역할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10세를 기준으로 시대별 코호트를 총 7개로 분류할 수 있다. 구시대(Old China, 1939년 이전 출생), 새시대(New China, 1939~1946년 출생), 잃어버린 시대(Lost generation, 1947~1955년 출생), 초기 문화혁명시대(Early Cultural Revolution, 1956~1961년 출생), 후기 문화혁명시대(Late Cultural Revolution, 1962~1966년 출생), 경제개혁시대(Economic Reform, 1967~1976년 출생), 개방시대(Opening up, 1977~1983년 출생)이다.

구시대의 어린이들은 20세기에 들어서 사회의 변화를 경험했다. 가부장적인 전통은 대부분의 중국 가정에서 지속되었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대동안에는 위 7개 코호트 중 세 코호트가 속한다. 새 시대의 어린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목격했으며,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 결혼에서 동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제공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진입하는 것을 보았다. 반면 잃어버린 세대와 문화혁명 시기의 어린이들은 자연 재해와 정치적 갈등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랐다. 두 코호트는 개혁과 개방 정책 속에 자랐으며, 그들의 인격 형성기에 경제적 호황의 혜택과 세계화에 따른 물질적 문화적 영향을 경험하며 자랐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첫 세대로, 개방 시대의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들 딸에 대한 차별 없이 자랐으며, 동등한 부모의 기대와 도시에서 자랄 경우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성인이 되어 좀 더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연령과 출생 코호트에 관계없이 전 인구에게 영향을 끼쳤다. 1955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은 빠른 경제적 성장을 경험했으며, 세계화가 진전되었고, 고등교육이 확대되었으며, 수입에서 성별 차이가 없어졌고, 민간 기업에 의한 고용과 해고에 더 많은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국가적 통제가 약화된 반면, 가구별 소득이 증가하고,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새로운 사회적 문맥을 만들어 내었으며, 성역할에 대한 평등한 관점에 도움이 된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주었다.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성장이 강화되고, 삶의 조건이 높아지며, 세계시장 편입이 가속화 되었다. GDP는 50% 이상 증가하고, 1인당 연간소득 역시 증가하였으며, FDI는 20% 증가하였다. 대중문화는 여성에 대한 평등적 관점을 포함한 서양적 가치와 문화에 대중들을 노출시켰다(Bullough and Ruan, 1994; Farrer, 2002). 고등교육 개혁은 1995~2002년 동안 입학률을 두 배 증가시켰다. 출산율은 2008년에 1.8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와 세계 평균 보다 훨씬 낮고, 핵가족이 새로운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임금 성별 차이는 15%에서 2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Cohen and Wang, 2009). 시장의 변화는 직업과 산업에 따라 임금 격차를 심화 시켰고 여성들은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Shu, 2005). 외국 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증가는 여성을 저임금의 공장으로, 남성을 고임금의 다국가 기업으로 배치하였다(Shu et al., 2007). 시장의 흐름을 따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인 성적 평등의 이데올로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와 같이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다.

태도에 대한 사회학 연구에서 교육은 가치 변화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며, 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교육은 양성 평등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Mason et al., 1976, Spitze and Huber, 1980). 개인의 교육은 중국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에도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Shu, 2004). 중국에서 교육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효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 가지 이유에서 강화되었다. 우선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인들은 세계화를 통해서 서구적 성역할 태도에 노출되었다(Shu, 2004). 둘째,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시장개혁 기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Xie and Hannum, 1996), 여성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고 더 많은 권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역할 태도에 좀 더 진보적이 되도록 했을 것이다(Shu, 2004). 세 번째 현대화 논쟁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전문직과 관리직을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성역할 태도에서 이해와 노출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성역할 차이가 확대되었다(Bolzendahl and Myers, 2004).

제 3 장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

제1절 자료 및 변수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제4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출산 및 가치관 변화

제5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가치관과 임신 여부

3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 <<

제1절 자료 및 변수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조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일과 가족생활 양립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여성가족패널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19~64세 여성 9,997명을 표본으로 2007년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2차 조사는 2008년, 3차 조사는 2010년, 4차 조사는 2012년, 그리고 2015년 현재 5차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5차 조사에는 8,987명이 참여하여 72.6%의 표본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주재선 등, 2015).

이 연구는 49세 이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결혼 가치관, 가족 역할 가치관, 가족 부양 가치관 문항은 3차 연도(2010년)부터 추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3차 연도(2010년)부터 5차 연도(2015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3,128명이 포함되었다.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가치관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결혼 가치관, 가족 역할 가치관, 가족 부양 가치관을 측정하였다. 먼저, 결

혼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과 자녀에 대한 필요성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에 대한 필요성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를 그리고 자녀에 대한 필요성은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였다.

가족 역할 가치관은 가족 내 부부 성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등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응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 부양 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부모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각 문항은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등 총 3개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었다.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자녀 수, 일자리 유무, 결혼생활 만족도, 건강상태, 남편 연령과 고용상태, 그리고 총가구소득을 포함시켰다. 연령 변수는 29세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30~34세, 35~39세, 40대 이상을 나타내는 3개의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으로 2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으로 구성되었다. 자녀 수는 0명을 기준으로 1명, 2명 이상을 포함시켰다. 일자리 유무는 일자리 없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가변수를 사용하였고, 결혼생활 만족도는 ‘매우 불행하다’ 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건강 상태는 ‘매우 좋다’ 1점에서 ‘조금 나쁜 편이다’ 4점 척도이다. 남편의 연령은 29세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30~34세,

35~39세, 40대 이상을 나타내는 3개의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남편의 고용상태는 무직을 기준으로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기능원/단순 노무자, 농림어업 및 숙련 종사자로 구성되었다. 총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가치관과 출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3차 시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3차에서 5차까지 4년간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 학력, 일자리 유무, 결혼생활 만족도, 건강상태, 남편 연령 및 고용상태, 그리고 총가구소득 등을 측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가치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 가치관, 가족 역할 가치관, 가족 부양 가치관을 각각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자리 유무 및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살펴보았다.

제3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연령은 40세 이상이 50.0%로 가장 높다. 여성가족패널 조사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높아지는 미혼율로 전체 기혼 여성에서 20대나 30대 등 젊은 여성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40대 여성의 높은 비율은 이러한 최

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2016년 현재 전국의 여성 인구가 총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 별로 살펴보았을 때, 40대 여성인구가 16.3%로 가장 높다(통계청, 2016).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4.4%로 가장 많고,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53.7%이다. 기혼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6.2%로 높고, 34%가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5.9%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64.6%). 남편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령은 40세 이상(65.9%)이 높고,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29.1%)와 관리직(18.8%) 비율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구 총소득은 평균 3,500만 원이다.

〈표 3-1〉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128)

구분	N	%	구분	N	%
연령			건강상태		
~29세	114	3.6	매우 좋다	368	11.8
30~34세	509	16.3	대체로 좋은 편이다	2,021	64.6
35~39세	940	30.1	보통이다	612	19.6
40세 이상	1,565	50.0	조금 나쁜 편이다	127	4.1
학력			남편 연령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01	54.4	~29세	36	1.2
2년제 대학교 졸업	567	18.1	30~34세	294	9.4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860	27.5	35~39세	737	23.6
일자리 유무			40세 이상	2,061	65.9
없다	1,680	53.7	남편 고용상태		
있다	1,448	46.3	무직	506	16.2
결혼 만족도			관리자 및 전문가	588	18.8
매우 불행하다	183	5.9	사무 종사자	548	17.5
대체로 불행하다	745	2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33	13.9
보통이다	1,129	36.2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909	29.1
행복한 편이다	857	27.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3	4.6
매우 행복하다	203	6.5	총가구소득(log)	8.2(0.7)	

제4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출산 및 가치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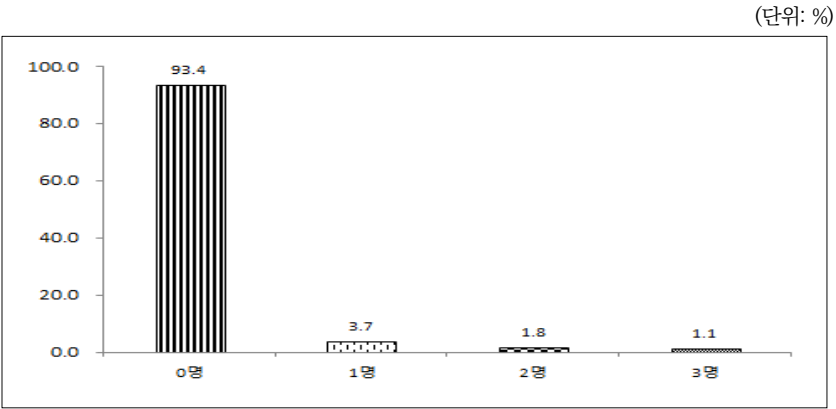
1. 출산 및 임신 변화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지난 4년간 출산 및 임신 변화와 결혼, 가족 역할 및 가족 부양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3-1]과 [그림 3-2]는 4년간 기혼 여성들이 출산한 자녀 수와 임신 횟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이 3차에서 5차까지 4년간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가 93.4%로 가장 많았다. 1명 출산한 경우는 3.7%이며, 2명의 경우 1.8%, 그리고 3명인 경우는 1.1%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임신 횟수를 살펴보면,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가 93.4%로 가장 높고, 1번인 경우가 5.4%, 2번 1.1%, 3번이 0.1%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15~49세)의 임신 횟수는 평균 2.27회이며, 2회가 41.2%로 가장 많고 0회가 4.4%로 나타났다(이삼식 등,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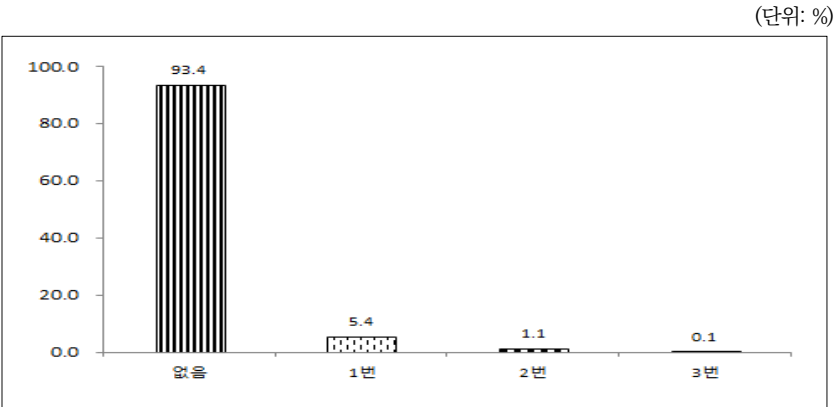
기혼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 자녀 수 변화를 살펴볼 때, 지난 4년간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을 감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통계청, 2015) 매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동에서 주목할 것은 미혼 남녀들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0년 전에 비해 여성의 경우 2.3세, 남성의 경우 1.9세 상승하여, 2014년 현재 여성은 29.8세, 남성은 32.4세로 높아졌다(통계청, 2015). 이러한 만혼화는 우리 사회 미혼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 출산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미혼율이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통계개발원, 2015). 미혼 남녀들의 혼인 연령 상승으로 인한 미혼율 증가는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김영철, 2011; 이삼식 등, 2010; 이상립, 2013; Jones, 2007).

[그림 3-1] 기혼 여성의 4년간 출산 자녀 수



[그림 3-2] 기혼 여성의 4년간 임신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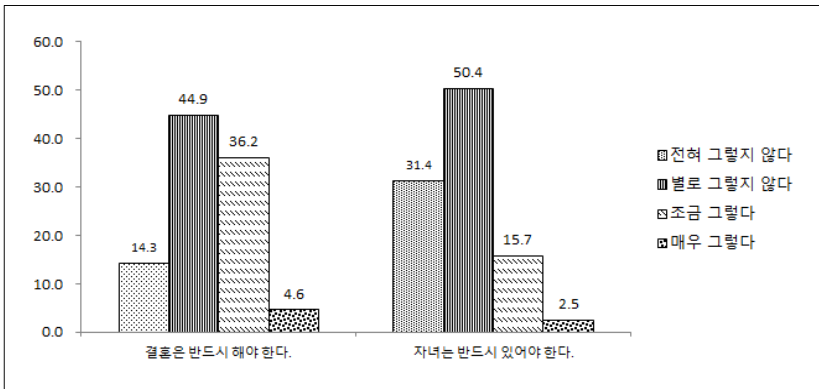


2. 결혼 가치관, 가족 역할 가치관, 가족 부양 가치관

다음으로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 가치관, 가족 역할 가치관, 그리고 가족 부양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결혼 가치관을 살펴보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49세 이하 기혼 여성은 ‘조금 그렇다’ 36.2%, ‘매우 그렇다’ 4.6%로 40.8%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의 자녀 필요성을 보면, 81.8%가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그림 3-3]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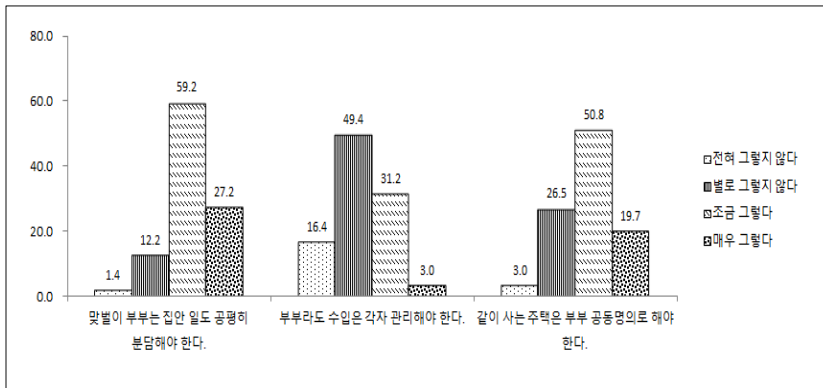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은 3개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과 달리 기혼 여성의 80% 이상은 남녀 모두 집안일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문항에 ‘조금 그렇다’ 59.2%, ‘매우 그렇다’ 27.2%로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 남녀 모두 평등한 역할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 여전히 남녀 불평등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 41분인 반면, 남성의 경우 3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이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급노동시간은 감소되는 것을 볼 때, 시간 사용에 따른 젠더 불평등이 두드러진다(김진옥, 고은주, 2014). 다음으로,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경제적 가치관을 살펴보면, ‘매우 그렇지 않다’ 16.4%, ‘별로 그렇지 않다’ 49.4%로 가족 내 수입 관리에 있어 남녀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에 있어 70% 이상이 부부가 함께 공동 명의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성들의 교육 수준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경제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기혼 여성의 가족역할 가치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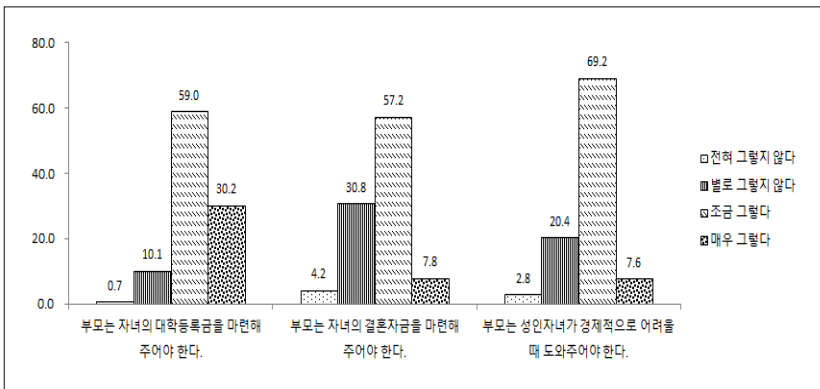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부양 가치관은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

어야 한다'의 경우 '조금 그렇다'가 59.0%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부모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를 보면, 65%가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30.8%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의 경우 '조금 그렇다'가 69.2%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정서적 및 도구적 지원의 가족 부양은 최근 성인 자녀들의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성인 자녀들에게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는 부모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성인 자녀와 부모의 동거 비율을 고려한다면,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Lee, 2016).

[그림 3-5] 기혼 여성의 가족 부양 가치관

(단위: %)



제5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가치관과 임신 여부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신 여부

기혼 여성의(49세 이하) 4년간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신 여부를 일자리 유무와 자녀 수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 역할, 가족 부양 가치관이 기혼 여성들의 출산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표 3-2>는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신 여부를 살펴본 결과이다.

기혼 여성들의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자녀 수, 연령, 학력, 남편 연령 및 총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이 출산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많을수록 이후 4년간 임신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대체로 가구수입은 50대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가구수입이 높다는 뜻이 비례하여 연령도 올라간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가구수입과 임신 여부의 관계에는 연령효과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출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실제로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0명에서 1명 출산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등, 2015).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기회 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김정석, 2007; 김현숙, 2007, 이삼식, 2006; Barber, 2011). 그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출산 자녀 수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등, 2015). 따라서 소득과 학력에 있어 기혼 여성의 출산 관계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2〉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74 *	0.34
2명 이상	-1.68 ***	0.32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69 *	0.28
35~39세	-1.64 ***	0.34
40세 이상	-3.95 ***	0.64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6	0.2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50 *	0.22
일자리 유무	0.14	0.18
결혼생활 만족도	0.12	0.09
건강상태	-0.21	0.14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05	0.44
35~39세	-0.78	0.47
40세 이상	-1.55 **	0.54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11	0.30
사무 종사자	0.00	0.2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13	0.3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7	0.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7	0.68
총가구소득(log)	-0.22 *	0.09
Constant	2.71	
-2 Log Likelihood	-478.98517	
N	3,083	

* p<.05, ** p<.01, *** p<.001

〈표 3-3〉은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임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자리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일자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임신 여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 수와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도 보인다. 일자리가 있는 기혼 여성과 달리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들은 건강상태가 나쁘고, 남편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학력은 직업 여부에 따라 기혼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가능성에

큰 차이를 보인다. 취업자인 경우보다 미취업자인 경우가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살펴볼 때(신인철, 2009),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한 기혼 여성들에게는 건강이나 소득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임신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이러한 결과는 취업한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는 일을 별로 중시하지 않거나 또는 포기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 취업한 기혼 여성은 아무래도 아이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3-3〉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취업 여부

	전업 주부		취업 주부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85	0.47	-0.48	0.51
2명 이상	-1.60 ***	0.44	-1.80 ***	0.50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60	0.36	-1.10 *	0.48
35~39세	-1.33 **	0.44	-2.43 ***	0.57
40세 이상	-3.74 ***	0.87	-4.48 ***	0.96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22	0.28	-0.31	0.4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5 *	0.28	-0.07	0.39
결혼생활 만족도	0.06	0.11	0.23	0.16
건강상태	-0.40 *	0.18	0.08	0.23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12	0.54	0.28	0.79
35~39세	-1.04	0.58	-0.10	0.84
40세 이상	-1.65 *	0.67	-1.13	0.94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4	0.38	0.30	0.54
사무 종사자	-0.31	0.36	0.35	0.5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25	0.41	0.06	0.53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29	0.32	-0.45	0.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7	0.85	-0.41	1.15
총가구소득(log)	-0.23 *	0.10	-0.19	0.21
Constant		3.27		1.88
-2Log Likelihood		-295.79		-173.26
N		1,655		1,428

* p<.05, ** p<.01, *** p<.001

〈표 3-4〉는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임신 여부를 자녀 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자녀가 0명, 1명, 2명 이상인 각 기혼 여성들의 집단에 따라 임신 여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건강상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수가 1명과 2명 이상인 경우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할 확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한편, 자녀가 1명인 기혼 여성은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출산으로 이어질 때 결혼 만족도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의 높은 결혼 만족도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기혼 여성들의 후속 출산 계획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임현주 등, 2011).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자녀를 1명 갖고 있는 부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매우 큰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을 찾아내서 그러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 수 있다면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기혼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부담이 매우 중요하다면 이 남성들을 이러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남편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출산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학력이 높아질수록 출산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 여성(49세 이하)들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이들의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3-4〉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녀 수

	자녀 없음		1명		2명 이상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집단: ~29세 이하)						
30~34세	-0.57	1.29	-0.90	0.50	-0.42	0.38
35~39세	0.47	1.64	-2.27 ***	0.64	-1.45 ***	0.45
40세 이상	-0.99	2.34	-4.31 ***	1.01	-4.61 ***	1.13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2.05	1.12	-0.08	0.44	0.20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94	1.18	0.46	0.45	0.72 **	0.29
일자리 유무	-0.33	0.74	0.53	0.35	-0.05	0.24
결혼생활 만족도	0.49	0.43	0.34 *	0.17	0.00	0.12
건강상태	-1.80 *	0.91	-0.35	0.26	-0.09	0.18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1.23	1.55	-0.83	0.88	-0.21	0.57
35~39세	-0.89	1.77	-1.45	0.95	-1.00	0.60
40세 이상	-3.12	2.18	-1.55	1.05	-1.90 **	0.70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03	1.20	-1.12	0.62	0.50	0.40
사무 종사자	0.67	1.05	-0.66	0.51	0.36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76	1.30	-0.78	0.60	0.41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1.80	1.21	0.58	0.49	0.08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4	2.23	0.31	1.29	-0.68	1.09
총가구소득(log)	-0.12	0.32	-0.14	0.36	-0.29 **	0.10
Constant	4.71		1.84		1.38	
-2Log Likelihood	-31.22		-126.18		-296.56	
N	86		441		2,556	

* p<.05, ** p<.01, *** p<.001

2. 사회인구학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임신 여부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결혼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5〉에 제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모델 2에서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자녀 수, 연령, 학력, 남편 연령,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들은 출산 자녀 수가 많고, 본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임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력은 임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 가치관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긍정적 가치관이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은 모델 1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또한 기혼 여성(49세)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기혼 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서정연, 김한곤, 2015)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차후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된 행위 이론(planned behavior theory)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해 선호가 높으면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가치 지향은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대상이다. 재미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뿐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역시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4년간 임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확고한 여성들은 아마도 전통적인 여성들의 삶-적절한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들일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아무래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

〈표 3-5〉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전체

	Model 1		Model 2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73 *	0.34	-0.84 *	0.34
2명 이상	-1.68 ***	0.32	-1.79 ***	0.33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64 *	0.28	-0.70 *	0.28
35~39세	-1.57 ***	0.34	-1.64 ***	0.34
40세 이상	-3.93 ***	0.64	-3.95 ***	0.64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5	0.23	0.06	0.2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47 *	0.22	0.49 *	0.22
일자리 유무	0.16	0.18	0.13	0.18
결혼 만족도	0.08	0.09	0.10	0.09
건강상태	-0.21	0.14	-0.21	0.14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09	0.44	-0.06	0.44
35~39세	-0.85 **	0.47	-0.80	0.47
40세 이상	-1.62	0.54	-1.57 **	0.54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14	0.30	-0.14	0.30
사무 종사자	-0.03	0.28	-0.02	0.2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14	0.31	-0.16	0.3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7	0.27	0.07	0.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5	0.67	-0.42	0.67
총가구소득(log)	-0.22 *	0.09	-0.22 *	0.09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0.31 **	0.12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0.24 *	0.12
Constant		2.01		2.13
-2Log Likelihood		-475.44		-477.03
N		3,083		3,083

* p<.05, ** p<.01, *** p<.001

〈표 3-6〉은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일 자리 유무에 따라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결혼 가치관과 기혼 여성의 임신 유무는 일자리 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자녀 수와 연령은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을 수록 기혼 여성이 임신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준다. 그러나

학력과 남편의 연령은 일자리가 있는 기혼 여성의 임신 유무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 변인을 투입하자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들의 출산 가능성에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전업주부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취업 여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Coef.	S. E.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 수(기준집단: 없음)								
1명	-0.84	0.47	-0.97 *	0.48	-0.44	0.52	-0.56	0.52
2명 이상	-1.61 ***	0.44	-1.73 ***	0.45	-1.73 ***	0.50	-1.88 ***	0.51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51	0.36	-0.59	0.36	-1.19 *	0.49	-1.15 *	0.49
35~39세	-1.23 **	0.44	-1.30 ***	0.44	-2.45 ***	0.57	-2.47 ***	0.57
40세 이상	-3.67 ***	0.87	-3.71 ***	0.87	-4.59 ***	0.96	-4.54 ***	0.97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25	0.28	0.23	0.28	-0.41	0.41	-0.35	0.4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3 **	0.28	0.76 **	0.28	-0.12	0.40	-0.10	0.39
결혼생활 만족도	0.03	0.12	0.03	0.12	0.18	0.16	0.21	0.16
건강상태	-0.39 *	0.18	-0.39 *	0.18	0.05	0.23	0.07	0.23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17	0.54	-0.13	0.54	0.31	0.81	0.29	0.81
35~39세	-1.12	0.58	-1.08	0.58	-0.14	0.85	-0.08	0.85
40세 이상	-1.71 **	0.67	-1.69 **	0.67	-1.17	0.96	-1.10	0.95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7	0.38	-0.39	0.38	0.30	0.55	0.30	0.55
사무 종사자	-0.34	0.37	-0.33	0.37	0.38	0.51	0.33	0.5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28	0.41	-0.29	0.41	0.09	0.54	0.02	0.54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30	0.32	0.30	0.32	-0.43	0.54	-0.45	0.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5	0.85	-0.39	0.85	-0.36	1.14	-0.49	1.15
총가구소득(log)	-0.23 *	0.11	-0.23 *	0.10	-0.21	0.20	-0.20	0.20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0.29 *	0.15			0.36	0.20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0.26	0.15			0.24	0.21
Constant	2.54		2.60		1.28		1.39	
-2Log Likelihood	-293.82		-294.31		-171.61		-172.59	
N	1,655		1,655		1,428		1,428	

* p<.05, ** p<.01, *** p<.001

전업주부들은 취업 여성들에 비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결혼의 절대성을 믿는 여성들은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은 거꾸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자녀를 갖게 하는지가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혼 여성들의 과반수는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표 3-7〉과 〈표 3-8〉은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이 출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 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자녀가 0명, 1명, 2명 이상인 집단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기혼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각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자녀 수가 많은 기혼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자녀가 3명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 준다. 또한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경우 건강상태변인만 출산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녀 수에 따라 각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 수가 많은 기혼 여성들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들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자녀는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아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이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꼭 아이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많은 여성들이 믿은 남아선호사상과 비슷하다.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딸만 있을 시 아들을 갖기 위해 다시 임신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첫째가 아들이라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도 된다. 다시 말해 아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꼭 아이의 수를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표 3-7〉 결혼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0명		1명		2명 이상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57	1.29	-0.85	0.50	-0.36	0.38
35~39세	0.47	1.67	-2.11 ***	0.64	-1.41 ***	0.45
40세 이상	-0.99	2.37	-4.30 ***	1.01	-4.60 ***	1.13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2.05	1.13	-0.11	0.44	0.20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93	1.22	0.46	0.45	0.67 *	0.29
일자리 유무	-0.33	0.74	0.52	0.35	-0.02	0.24
결혼생활 만족도	0.49	0.43	0.31	0.18	-0.04	0.12
건강상태	-1.80 *	0.93	-0.35	0.27	-0.10	0.18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1.23	1.58	-0.84	0.88	-0.24	0.57
35~39세	-0.90	1.81	-1.59	0.95	-1.03	0.61
40세 이상	-3.13	2.24	-1.64	1.05	-1.92 *	0.70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03	1.20	-1.13	0.62	0.47	0.41
사무 종사자	0.67	1.07	-0.68	0.52	0.34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76	1.30	-0.76	0.60	0.39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1.80	1.24	0.64	0.49	0.06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3	2.27	0.34	1.32	-0.71	1.09
총가구소득(log)	-0.11	0.34	-0.14	0.35	-0.28 *	0.10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0.01	0.43	0.38	0.22	0.31 *	0.15
Constant	4.68		0.95		0.67	
-2Log Likelihood	-31.22		-124.72		-294.54	
N	86		441		2,556	

* p<.05, ** p<.01, *** p<.001

〈표 3-8〉 자녀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0명		1명		2명 이상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 ~29세)						
30~34세	-0.69	1.32	-0.90	0.50	-0.42	0.38
35~39세	0.73	1.66	-2.26 ***	0.64	-1.46 ***	0.46
40세 이상	-1.20	2.55	-4.32 ***	1.01	-4.60 ***	1.13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1.73	1.16	-0.07	0.44	0.18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57	1.24	0.45	0.45	0.69 *	0.29
일자리 유무	-0.29	0.80	0.53	0.35	-0.06	0.24
결혼생활 만족도	0.63	0.47	0.33	0.18	-0.02	0.12
건강상태	-2.02 *	0.92	-0.34	0.27	-0.09	0.18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1.49	1.63	-0.82	0.88	-0.27	0.58
35~39세	-0.67	1.81	-1.46	0.95	-1.05	0.61
40세 이상	-3.31	2.26	-1.54	1.05	-1.96 **	0.70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56	1.37	-1.14	0.62	0.49	0.40
사무 종사자	0.03	1.17	-0.67	0.51	0.37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22	1.40	-0.80	0.61	0.39	0.42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1.76	1.33	0.59	0.49	0.08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98	2.13	0.32	1.28	-0.71	1.09
총가구소득(log)	-0.05	0.32	-0.13	0.36	-0.28 **	0.10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1.17 *	0.55	0.08	0.25	0.26	0.16
Constant	0.72		1.50		0.66	
-2Log Likelihood	-28.45		-126.13		-295.12	
N	86		441		2,556	

* p<.05, ** p<.01, *** p<.001

3.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

여기서는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역할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족 역할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은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등 총 3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표 3-9>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모델 1에서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가족 역할 가치관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녀 수가 많고,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달리 학력은 기혼 여성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성역할 가치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경제적 가치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부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믿을수록 이후 4년 동안 임신을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아마도 각자 관리하는 돈은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생활과 함께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영역을 더 원하는 의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혼자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다양한 영역을 배우고 익히고 싶어하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 영역 또는 생활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이후 아이를 출산해서 개인적인 부분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위 결과는 이러한 개인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9〉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전체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 자녀 없음)						
1명	-0.74 *	0.34	-0.73 *	0.34	-0.73 *	0.34
2명	-1.68 ***	0.32	-1.68 ***	0.32	-1.68 ***	0.32
연령(기준: ~29세)						
30~34세	-0.68 *	0.28	-0.69 **	0.28	-0.71 **	0.28
35~39세	-1.63 ***	0.34	-1.62 ***	0.34	-1.64 ***	0.34
40세 이상	-3.93 ***	0.64	-3.91 ***	0.64	-3.97 ***	0.64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5	0.23	0.06	0.23	0.04	0.2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48 *	0.22	0.48 *	0.22	0.51 *	0.22
일자리 유무	0.13	0.18	0.15	0.18	0.14	0.18
결혼생활 만족도	0.11	0.09	0.14	0.09	0.12	0.09
건강상태	-0.20	0.14	-0.22	0.14	-0.18	0.14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0.07	0.44	-0.01	0.44	-0.08	0.44
35~39세	-0.81	0.47	-0.76	0.47	-0.82	0.47
40세 이상	-1.57 **	0.54	-1.57 ***	0.54	-1.58 ***	0.54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12	0.30	-0.11	0.30	-0.08	0.30
사무 종사자	-0.01	0.28	0.00	0.28	0.02	0.2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16	0.32	-0.12	0.31	-0.11	0.3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6	0.27	0.07	0.27	0.11	0.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5	0.67	-0.32	0.67	-0.31	0.68
총가구소득(log)	-0.22 *	0.09	-0.22 *	0.09	-0.23 **	0.09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14	0.14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24 *	0.11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0.21	0.12
Constant		2.96		3.32		3.16
-2Log Likelihood		-478.49		-476.71		-477.39
N		3,083		3,083		3,083

* p<.05, ** p<.01, *** p<.001

〈표 3-10〉은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역할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일자리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모델 1에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자 일자리가 있는 기혼 여성과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은 경우 두 집단 모두 임신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학력, 건강상태, 남편 연령, 총가구소득은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의 임신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분석에서 비슷하게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가족 역할 가치관 변인을 투입하자 두 집단 모두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성역할 가치관은 일자리가 있는 기혼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기혼 여성들의 경우 직장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장시간 근로와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상황에서, 기혼 여성들은 직장 and 가족 내 남녀평등한 성역할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의 역할 갈등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으로 보인다(이진숙, 최원석, 2012).

〈표 3-10〉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취업 여부

	전업주부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 자녀 없음)						
1명	-0.85	0.47	-0.85	0.47	-0.82	0.47
2명	-1.60 ***	0.44	-1.62 ***	0.44	-1.59 ***	0.44
연령(기준: ~29세)						
30~34세	-0.60	0.36	-0.59	0.36	-0.63	0.36
35~39세	-1.34 ***	0.44	-1.31 ***	0.44	-1.35 ***	0.44
40세 이상	-3.74 ***	0.87	-3.71 ***	0.87	-3.77 ***	0.87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23	0.29	0.22	0.28	0.20	0.2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6 **	0.28	0.75 **	0.28	0.76 **	0.28
결혼생활 만족도	0.06	0.11	0.07	0.11	0.06	0.11
건강상태	-0.41 *	0.18	-0.41 *	0.18	-0.39 *	0.18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0.11	0.54	-0.09	0.54	-0.13	0.54
35~39세	-1.03	0.58	-1.03	0.58	-1.06	0.58
40세 이상	-1.64 **	0.67	-1.65 **	0.67	-1.65 **	0.67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3	0.38	-0.35	0.38	-0.34	0.38
사무 종사자	-0.30	0.37	-0.29	0.36	-0.32	0.36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23	0.41	-0.21	0.41	-0.25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30	0.33	0.30	0.32	0.33	0.3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8	0.86	-0.30	0.85	-0.32	0.86
총가구소득(log)	-0.23	0.10	-0.23 *	0.10	-0.24 *	0.10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06	0.18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17	0.14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0.18	0.15
Constant	3.18		3.70		3.65	
-2Log Likelihood	-295.72		-295.10		-295.11	
N	1,655		1,655		1,655	

* p<.05, ** p<.01, *** p<.001

	취업 주부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 자녀 없음)						
1명	-0.52	0.52	-0.47	0.52	-0.49	0.51
2명	-1.82 ***	0.50	-1.73 ***	0.50	-1.79 ***	0.50
연령(기준: ~29세)						
30~34세	-1.04 *	0.48	-1.12 *	0.49	-1.10 *	0.48
35~39세	-2.41 ***	0.57	-2.40 ***	0.58	-2.40 ***	0.58
40세 이상	-4.45 ***	0.97	-4.45 ***	0.96	-4.50 ***	0.97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17	0.40	-0.31	0.40	-0.28	0.4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08	0.40	-0.13	0.39	-0.05	0.39
결혼생활 만족도	0.20	0.16	0.27	0.17	0.22	0.16
건강상태	0.15	0.24	0.08	0.24	0.17	0.24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0.18	0.80	0.30	0.80	0.22	0.80
35~39세	-0.19	0.85	-0.09	0.85	-0.21	0.85
40세 이상	-1.13	0.95	-1.21	0.95	-1.20	0.95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6	0.55	0.32	0.54	0.42	0.56
사무 종사자	0.39	0.50	0.31	0.50	0.47	0.5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01	0.54	-0.03	0.54	0.15	0.55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47	0.54	-0.49	0.53	-0.38	0.5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9	1.14	-0.49	1.15	-0.34	1.15
총가구소득(log)	-0.24	0.23	-0.21	0.21	-0.21	0.22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52 *	0.26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38	0.20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0.33	0.20
Constant	3.15		2.94		2.56	
-2Log Likelihood	-171.06		-171.44		-171.80	
N	1,428		1,428		1,428	

* p<.05, ** p<.01, *** p<.001

〈표 3-11〉은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역할 가치관이 자녀 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자 자녀 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1명, 2명 이상인 집단의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추가 출산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3집단 모두 가족 역할 가치관을 투입하자 자녀가 1명인 집단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는 경제적 가치관은 자녀가 1명인 기혼 여성의 출산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녀가 1명인 기혼 여성들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다. 만약 이 여성들에게 각자 관리하는 수입이 개인적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1명인 여성들 중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둘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이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고도 개인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표 3-11〉 가족 역할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0명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 ~29세)						
30~34세	-1.10	1.36	-0.14	1.37	-0.44	1.33
35~39세	-0.32	1.71	0.55	1.68	0.74	1.72
40세 이상	-2.20	2.53	-1.46	2.44	-0.67	2.40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2.22	1.16	-1.83	1.16	-1.94	1.1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18	1.22	-2.44	1.28	-1.70	1.21
일자리 유무	-0.11	0.76	-0.30	0.74	-0.38	0.76
결혼생활 만족도	0.41	0.44	0.67	0.47	0.54	0.44
건강상태	-1.88 *	0.93	-2.33 *	1.10	-1.56	0.94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1.84	1.64	1.02	1.61	1.40	1.59
35~39세	-0.37	1.84	-1.42	1.83	-0.81	1.82
40세 이상	-2.47	2.15	-2.98	2.20	-2.95	2.24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52	1.25	-0.32	1.24	-0.18	1.24
사무 종사자	0.08	1.11	0.21	1.12	0.81	1.1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40	1.42	-2.59	1.56	-1.74	1.38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1.96	1.27	-3.11	1.52	-1.63	1.2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3	2.21	-1.84	2.42	-1.52	2.38
총가구소득(log)	-0.12	0.33	-0.26	0.35	-0.17	0.33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1.36	0.83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1.07	0.64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0.83	0.58
Constant	7.88		9.84		5.73	
-2Log Likelihood	-29.76		-29.61		-30.12	
N	86		86		86	

* p<.05, ** p<.01, *** p<.001

70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1명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 ~29세)						
30~34세	-0.90	0.50	-0.95	0.50	-0.86	0.50
35~39세	-2.27 ***	0.64	-2.21 ***	0.64	-2.21 ***	0.64
40세 이상	-4.32 ***	1.02	-4.25 ***	1.01	-4.45 ***	1.02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8	0.44	-0.09	0.44	-0.16	0.4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45	0.45	0.47	0.45	0.44	0.45
일자리 유무	0.53	0.35	0.51	0.35	0.51	0.35
결혼생활 만족도	0.34 *	0.17	0.40 *	0.18	0.35 *	0.18
건강상태	-0.34	0.27	-0.37	0.27	-0.29	0.27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0.83	0.88	-0.71	0.92	-1.17	0.93
35~39세	-1.45	0.95	-1.42	0.99	-1.86	1.01
40세 이상	-1.54	1.05	-1.65	1.09	-1.78	1.09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1.12	0.62	-1.05	0.61	-1.14	0.63
사무 종사자	-0.66	0.51	-0.64	0.51	-0.66	0.5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79	0.61	-0.78	0.62	-0.81	0.62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58	0.49	0.66	0.49	0.67	0.5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2	1.28	0.12	1.26	0.26	1.23
총가구소득(log)	-0.14	0.36	-0.12	0.36	-0.17	0.37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03	0.26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54 *	0.22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Constant	1.89		2.95		3.17	
-2Log Likelihood	-126.18		-123.09		-124.23	
N	441		441		441	

* p<.05, ** p<.01, *** p<.001

	2명 이상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 ~29세)						
30~34세	-0.39	0.38	-0.42	0.38	-0.43	0.38
35~39세	-1.42 ***	0.46	-1.45 ***	0.45	-1.47 ***	0.45
40세 이상	-4.57 ***	1.13	-4.61 ***	1.13	-4.62 ***	1.13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20	0.29	0.20	0.29	0.20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2 **	0.29	0.72 **	0.29	0.73 **	0.29
일자리 유무	-0.05	0.24	-0.05	0.24	-0.04	0.24
결혼생활 만족도	-0.01	0.12	0.00	0.12	0.00	0.12
건강상태	-0.08	0.18	-0.09	0.18	-0.08	0.18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0.25	0.57	-0.21	0.57	-0.21	0.57
35~39세	-1.04	0.61	-0.99	0.61	-0.99	0.61
40세 이상	-1.94 **	0.70	-1.90 **	0.70	-1.90 **	0.70
남편 고용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50	0.41	0.50	0.40	0.51	0.41
사무 종사자	0.35	0.39	0.36	0.39	0.37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39	0.42	0.41	0.41	0.42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8	0.39	0.08	0.39	0.10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68	1.09	-0.67	1.09	-0.66	1.10
총가구소득(log)	-0.29 **	0.10	-0.29 **	0.10	-0.29 **	0.11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0.13	0.18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0.02	0.15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0.07	0.15
Constant	1.65		1.42		1.54	
-2Log Likelihood	-296.28		-296.56		-296.45	
N	2,256		2,556		2,556	

* p<.05, ** p<.01, *** p<.001

4.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

〈표 3-12〉는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부양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가족 부양 가치관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이다. 이는 총 3문항으로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로 구성하였다.

먼저, 모델 1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가치관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녀 수가 많고,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고, 총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출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가치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모델 2와 모델 3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이다. 가족 부양 가치관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등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 문항은 현재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 고려할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및 사교육비 등을 포함한 경제적 부양의 가치관 문항으로 분석하였다면 기혼 여성의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2〉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전체

	Model 1		Model 2		Model 3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74 *	0.34	-0.74 *	0.34	-0.76 *	0.34
2명 이상	-1.69 ***	0.32	-1.69 ***	0.32	-1.71 ***	0.32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69 **	0.28	-0.69 **	0.28	-0.68 **	0.28
35~39세	-1.64 ***	0.34	-1.64 ***	0.34	-1.64 ***	0.34
40세 이상	-3.95 ***	0.64	-3.94 ***	0.64	-3.95 ***	0.64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6	0.22	0.06	0.22	0.05	0.2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50 *	0.22	0.50 *	0.22	0.50 *	0.22
일자리 유무	0.14	0.18	0.14	0.18	0.13	0.18
결혼생활 만족도	0.12	0.09	0.12	0.09	0.12	0.09
건강상태	-0.21	0.14	-0.21	0.14	-0.20	0.14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05	0.44	-0.05	0.44	-0.08	0.44
35~39세	-0.79	0.47	-0.78	0.47	-0.81 ***	0.47
40세 이상	-1.56 ***	0.54	-1.56 ***	0.54	-1.59	0.54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11	0.30	-0.12	0.30	-0.09	0.30
사무 종사자	0.00	0.28	-0.01	0.28	-0.01	0.2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13	0.31	-0.14	0.31	-0.15	0.3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7	0.27	0.07	0.27	0.08	0.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7	0.68	-0.39	0.68	-0.42	0.68
총가구소득(log)	-0.22 *	0.09	-0.22 **	0.09	-0.22 **	0.09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07	0.13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20	0.14
Constant	2.78		2.88		3.16	
-2Log Likelihood	-478.96		-478.81		-478.00	
N	3,083		3,083		3,083	

* p<.05, ** p<.01, *** p<.001

〈표 3-13〉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부양 가치관이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일자리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자 일자리 유무에 따라 기혼 여성의 임신 여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녀 수와 연령은 일자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상태와 남편의 연령, 총가구소득은 일자리가 없는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높은 학력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족 부양 가치관은 두 집단 모두 출산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13〉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취업 여부

	전업 주부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85	0.47	-0.83	0.47	-0.85	0.47
2명 이상	-1.60 ***	0.44	-1.56 ***	0.44	-1.60 ***	0.44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59	0.36	-0.56	0.36	-0.58	0.36
35~39세	-1.33 ***	0.44	-1.30 ***	0.44	-1.32 ***	0.44
40세 이상	-3.73 ***	0.87	-3.69 ***	0.87	-3.73 ***	0.87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21	0.28	0.23	0.28	0.21	0.2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5 **	0.28	0.77 **	0.28	0.74 **	0.28
결혼생활 만족도	0.06	0.11	0.06	0.11	0.06	0.11
건강상태	-0.40 *	0.18	-0.40 *	0.18	-0.39 *	0.18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12	0.54	-0.19	0.54	-0.14	0.54
35~39세	-1.05	0.58	-1.11 *	0.58	-1.06	0.58
40세 이상	-1.66 **	0.67	-1.76 **	0.67	-1.68 **	0.67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4	0.38	-0.33	0.37	-0.32	0.38
사무 종사자	-0.32	0.37	-0.36	0.37	-0.32	0.37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26	0.41	-0.31	0.41	-0.27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29	0.32	0.32	0.33	0.30	0.3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7	0.85	-0.51	0.86	-0.40	0.85
총가구소득(log)	-0.23 *	0.10	-0.22 *	0.11	-0.23 *	0.10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05	0.17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27	0.17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14	0.18
Constant	3.37		3.83		3.57	
-2Log Likelihood	-295.74		-294.46		-295.48	
N	1,655		1,655		1,655	

* p<.05, ** p<.01, *** p<.001

76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취업 주부					
	Coef.	S. E.	Coef.	S. E.	Coef.	S. E.
자녀수(기준집단: 없음)						
1명	-0.49	0.51	-0.45	0.51	-0.56	0.52
2명 이상	-1.80 ***	0.50	-1.77 ***	0.50	-1.87 ***	0.50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1.10 *	0.48	-1.07 *	0.48	-1.13 *	0.48
35~39세	-2.43 ***	0.57	-2.41 ***	0.57	-2.47 ***	0.57
40세 이상	-4.49 ***	0.96	-4.44 ***	0.96	-4.52 ***	0.96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31	0.40	-0.31	0.40	-0.31	0.4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07	0.39	-0.08	0.39	-0.06	0.39
결혼생활 만족도	0.23	0.16	0.23	0.16	0.24	0.16
건강상태	0.08	0.23	0.09	0.23	0.08	0.23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26	0.80	0.24	0.80	0.26	0.79
35~39세	-0.11	0.84	-0.15	0.84	-0.11	0.83
40세 이상	-1.14	0.94	-1.17	0.95	-1.13	0.94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30	0.54	0.33	0.55	0.34	0.55
사무 종사자	0.35	0.50	0.37	0.50	0.38	0.5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06	0.54	0.07	0.54	0.07	0.54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45	0.53	-0.43	0.53	-0.41	0.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41	1.15	-0.38	1.15	-0.44	1.15
총가구소득(log)	-0.20	0.21	-0.18	0.21	-0.18	0.21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05	0.23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15	0.21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31	0.25
Constant	2.02		1.42		2.49	
-2Log Likelihood	-173.24		-172.99		-172.45	
N	1,428		1,428		1,428	

* p<.05, ** p<.01, *** p<.001

〈표 3-14〉는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부양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에 비해 자녀가 1명, 2명 이상인 경우 본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2명 이상인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 부양 가치관을 투입한 결과, 자녀 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자녀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가치관은 자녀가 1명인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기혼 여성의 출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3-14〉 가족 부양 가치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 자녀 수

	0명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집단: ~29세 이하)						
30~34세	-0.23	1.41	-0.59	1.30	-0.55	1.25
35~39세	1.19	1.78	0.53	1.65	0.44	1.59
40세 이상	-1.52	2.45	-1.02	2.36	-1.07	2.41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2.35 *	1.16	-2.09	1.13	-1.93	1.1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68	1.22	-1.98	1.20	-1.71	1.22
일자리 유무	-0.27	0.80	-0.23	0.78	-0.28	0.76
결혼생활 만족도	0.69	0.48	0.46	0.44	0.48	0.44
건강상태	-1.55	0.93	-1.78 *	0.92	-1.67	0.91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82	1.64	1.40	1.62	0.88	1.57
35~39세	-1.80	1.92	-0.80	1.78	-0.91	1.77
40세 이상	-3.45	2.22	-3.08	2.19	-3.59	2.22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41	1.37	-0.14	1.23	-0.21	1.24
사무 종사자	1.02	1.13	0.49	1.15	0.24	1.14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16	1.41	-1.99	1.46	-2.26	1.39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83	1.36	-2.01	1.35	-2.17	1.3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03	2.24	-2.01	2.30	-2.55	2.11
총가구소득(log)	0.06	0.35	-0.15	0.34	-0.01	0.33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1.87 *	0.87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23	0.59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70	0.59
Constant		5.54		5.62		5.66
-2Log Likelihood		-28.24		-31.15		-30.48
N		86		86		86

* p<.05, ** p<.01, *** p<.001

78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1명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집단: ~29세 이하)						
30~34세	-1.00 *	0.51	-0.94	0.50	-0.86	0.50
35~39세	-2.36 ***	0.64	-2.32 ***	0.64	-2.24 **	0.64
40세 이상	-4.27 ***	1.01	-4.38 ***	1.02	-4.30 **	1.01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7	0.44	-0.06	0.45	-0.08	0.4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49	0.45	0.39	0.45	0.45	0.45
일자리 유무	0.58	0.35	0.52	0.35	0.52	0.35
결혼생활 만족도	0.36 *	0.18	0.36 *	0.18	0.33	0.17
건강상태	-0.36	0.27	-0.28	0.26	-0.34	0.27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59	0.90	-0.65	0.90	-0.95	0.91
35~39세	-1.22	0.97	-1.30	0.97	-1.57	0.98
40세 이상	-1.36	1.06	-1.35	1.07	-1.67	1.08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1.15	0.62	-1.16	0.62	-1.06	0.62
사무 종사자	-0.69	0.51	-0.59	0.51	-0.66	0.5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66	0.61	-0.74	0.62	-0.81	0.6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62	0.49	0.58	0.49	0.58	0.4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10	1.42	0.40	1.28	0.39	1.28
총가구소득(log)	-0.11	0.35	-0.12	0.35	-0.12	0.36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40	0.28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53 *	0.26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20	0.29
Constant		0.67		0.19		2.22
-2Log Likelihood		-125.15		-124.15		-125.94
N		441		441		441

* p<.05, ** p<.01, *** p<.001

	2명 이상					
	Coef.	S. E.	Coef.	S. E.	Coef.	S. E.
연령(기준집단: ~29세 이하)						
30~34세	-0.43	0.38	-0.41	0.38	-0.42	0.38
35~39세	-1.46 ***	0.45	-1.46 ***	0.46	-1.46 ***	0.45
40세 이상	-4.62 ***	1.13	-4.60 ***	1.13	-4.61 ***	1.13
학력(기준집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19	0.29	0.22	0.29	0.19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73 **	0.29	0.75 **	0.29	0.72 **	0.29
일자리 유무	-0.06	0.24	-0.09	0.24	-0.06	0.24
결혼생활 만족도	-0.01	0.12	0.00	0.12	0.00	0.12
건강상태	-0.09	0.18	-0.08	0.18	-0.09	0.18
남편 연령(기준집단: ~29세)						
30~34세	-0.21	0.57	-0.21	0.57	-0.21	0.57
35~39세	-0.99	0.60	-0.99	0.61	-0.99	0.60
40세 이상	-1.90 **	0.70	-1.91 **	0.70	-1.90 **	0.70
남편 고용상태(기준집단: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50	0.41	0.50	0.41	0.51	0.41
사무 종사자	0.35	0.39	0.33	0.39	0.36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40	0.41	0.40	0.42	0.41	0.41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0.08	0.39	0.11	0.39	0.10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71	1.10	-0.76	1.10	-0.70	1.09
총가구소득(log)	-0.29 **	0.11	-0.28 **	0.11	-0.29 **	0.11
부모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10	0.17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0.32 *	0.16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0.10	0.18
Constant		1.62		2.04		1.59
-2Log Likelihood		-296.38		-294.63		-296.42
N		2,556		2,556		2,556

* p<.05, ** p<.01, *** p<.001

제 4 장

21세기 이후 가치관의 변화 추이

제1절 자료 및 변수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제4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제5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4

21세기 이후 << 가치관의 변화 추이

제1절 자료 및 변수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urvey)로서, 15~49세 가임기 기혼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가치관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한국 사회 저출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되었다(이삼식 등,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15~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1964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 말부터 3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조사는 저출산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고(김승권 등, 2003) 2000년을 시작으로,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그리고 2015년 조사까지 완료되었다. 이 연구는 49세 이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이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5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4만 2,811명이 포함되었다.

결혼 가치관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1개 문항

이다. 각 문항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1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4점으로 응답하였다. 자녀 가치관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없어도 상관없다’ 1점에서 ‘꼭 필요하다’ 3점으로 응답하였다.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일자리 유무, 남편연령 및 일자리 유무, 총가구소득, 자녀의 수, 아들의 수, 그리고 딸의 수를 포함시켰다. 연령 변수는 29세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30~34세, 35~39세, 40대 이상을 나타내는 3개의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학력은 중학교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일자리 유무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남편의 연령은 29세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30~34세, 35~39세, 40대 이상을 나타내는 3개의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남편의 학력은 중학교 이하를 기준 집단으로,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업 및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남편의 일자리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총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 로그값을 사용하였고, 현존 자녀 수는 0명을 기준으로 1명, 2명, 그리고 3명 이상을 포함시켰다. 자녀 성별인 아들과 딸의 수는 0명을 기준으로 1명, 그리고 2명 이상을 포함시켰다.

제2절 연구방법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 추적을 위해 각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이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혼 여성의 연령, 학력, 일자리 유무, 남편의 연령, 학력, 일자리 유무, 총가구소득, 현존 자녀 수, 딸 자녀 수, 아들 자녀 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화가 각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자리 유무 및 자녀 수에 따른 각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3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연령은 40세 이상이 44.8%로 가장 높고, 35~39세가 24.8%로 높다. 40대 여성의 높은 비율은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한 앞선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많고(45.9%)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28.6%이다. 기혼 여성들의 50.8%는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남편의 연령 또한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이 59.2%로 가장 높다. 남편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40.9%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이 38%이다. 대부분의 남편은 현재 직업이 있으며(96.2%), 총가구소득은 평균 409.2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2명이 57.5%로 가장 많고, 자녀 성별에 있어 딸(39.1%)과 아들(50.1%) 모두 각각 1명인 경우가 많다.

〈표 4-1〉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2,811)

구분	N	%	구분	N	%
여성의 연령			남편의 일자리 유무		
~29세	4,581	10.7	없다	1,622	3.8
30~34세	8,440	19.7	있다	41,171	96.2
35~39세	10,601	24.8	총가구소득(평균)	409.2(만 원)	
40세 이상	19,189	44.8	현존 자녀 수		
여성의 학력			없음	3,340	7.8
중학교 이하	4,976	11.6	1명	8,983	21.0
고등학교	19,634	45.9	2명	24,537	57.5
2년제 대학교	5,926	13.9	3명 이상	5,842	
4년제 대학교 이상	12,251	28.6	아들의 수		
여성의 일자리 유무			없음	12,485	29.2
없다	21,061	49.2	1명	21,385	50.1
있다	21,748	50.8	2명 이상	8,839	20.7
남편의 연령			딸의 수		
~29세	1,949	4.6	없음	13,392	31.4
30~34세	6,229	14.7	1명	16,680	39.1
35~39세	9,141	21.5	2명 이상	12,637	29.6
40세 이상	25,164	59.2	2명 이상	8,839	20.7
남편의 학력					
중학교 이하	3,825	9.1			
고등학교	16,048	38.0			
2년제 대학교	5,113	12.1			
4년제 대학교 이상	17,298	40.9			

주: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4-2〉는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연령의 경우 20대 비율은 감소되는 반면 40대 비율이 각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어, 고연령층 기혼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20대 30대 여성들의 높은 미혼율과 관련이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4년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비율이 2000년 16.4%에서 2015년 40.0%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으로 올수록 대학을 졸업한 기혼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학력에 발맞춰 취업을 하는 기혼 여성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의 비율이 2000년에 46.1%에서 2015년에 53.7%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하고 있다. 남편의 연령 또한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의 비율이 높다. 학력에 있어 고등학교 졸업은 2000년에 43.6%에서 2015년 현재 30.4%로 감소한 반면,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경우 2000년에 29.0%에서 2015년에 51.0%까지 증가하였다. 남편의 일자리 유무는 매년 높아지고 있고, 총가구소득 또한 332.4만 원(2000년)에서 529.5만 원(2015년)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수는 연도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자녀가 0명인 경우는 2000년 7.1%에서 2015년 8.3%까지 증가하였다. 1명인 경우 또한 2000년 19.8%에서 2015년 24.4%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연도별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 여성들의 출산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한국 사회 저출산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별을 살펴보면, 아들보다는 딸이 1명인 경우가 2000년 42.9%에서 2015년 44.0%로 높게 나타났다.

88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표 4-2〉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도별

	2000년		2003년		2006		2009		2012		2015	
	N	%	N	%	N	%	N	%	N	%	N	%
여성의 연령												
~29세	1113	18.5	826	12.2	738	10.8	594	10.2	536	7.8	774	7.4
30~34세	1,220	20.3	1,439	21.3	1,415	20.7	1,017	17.4	1,308	19.0	2,041	19.5
35~39세	1,416	23.6	1,623	24.0	1,670	24.4	1,496	25.6	1,644	23.9	2,752	26.3
40세 이상	2,260	37.6	2,874	42.5	3,023	44.2	2,744	46.9	3,391	49.3	4,897	46.8
여성의 학력												
중학교 이하	1,632	27.2	1,498	22.2	854	12.5	524	9.0	272	4.0	196	1.9
고등학교	2,963	49.3	3,415	50.6	3,569	52.2	2,778	47.5	2,993	43.5	3,916	37.4
2년제 대학교	426	7.1	538	8.0	818	12.0	832	14.2	1,145	16.7	2,167	20.7
4년제 대학교 이상	986	16.4	1,304	19.3	1,595	23.3	1,716	29.3	2,465	35.9	4,185	40.0
여성의 일자리 유무												
없다	3,238	53.9	3,235	47.8	3,298	48.2	3,066	52.4	3,378	49.1	4,846	46.3
있다	2,769	46.1	3,527	52.2	3,548	51.8	2,785	47.6	3,501	50.9	5,618	53.7
남편의 연령												
~29세	508	8.5	312	4.6	309	4.6	262	4.5	213	3.1	345	3.4
30~34세	1,075	17.9	1,112	16.4	973	14.4	752	12.9	901	13.1	1,416	13.9
35~39세	1,268	21.1	1,398	20.7	1,516	22.4	1,272	21.8	1,430	20.9	2,257	22.1
40세 이상	3,158	52.6	3,940	58.3	3,981	58.7	3,562	60.9	4,315	62.9	6,208	60.7
남편의 학력												
중학교 이하	1,201	20.4	1,145	17.2	640	9.5	417	7.1	258	3.8	164	1.6
고등학교	2,570	43.6	2,835	42.6	2,857	42.2	2,305	39.4	2,362	34.5	3,119	30.4
2년제 대학교	416	7.1	617	9.3	714	10.6	693	11.9	930	13.6	1,743	17.0
4년제 대학교 이상	1,707	29.0	2,060	30.9	2,555	37.8	2,432	41.6	3,307	48.2	5,237	51.0
남편의 일자리 유무												
없다	384	6.4	296	4.4	365	5.3	236	4.0	143	2.1	198	1.9
있다	5,616	93.6	6,459	95.6	6,479	94.7	5,615	96.0	6,736	97.9	10,266	98.1
총가구소득(평균)	332.4(만 원)		288.2(만 원)		341.7(만 원)		387.8(만 원)		492.5(만 원)		529.5(만 원)	
현존 자녀 수												
없음	428	7.1	465	6.9	550	8.1	470	8.0	560	8.1	867	8.3
1명	1,186	19.8	1,176	17.5	1,338	19.8	1,239	21.2	1,487	21.6	2,557	24.4
2명	3,351	55.8	4,007	59.5	4,036	59.7	3,444	58.9	3,967	57.7	5,732	54.8
3명 이상	1,038	17.3	1,091	16.2	842	12.4	698	11.9	865	12.6	1,308	12.5
아들의 수												
없음	1,619	27.0	1,729	25.7	1,925	28.5	1,736	29.7	2,130	31.0	3,346	32.0
1명	3,045	50.7	3,507	52.0	3,454	51.1	2,938	50.2	3,403	49.5	5,038	48.2
2명 이상	1,343	22.4	1,506	22.3	1,387	20.5	1,177	20.1	1,346	19.6	2,080	19.9
딸의 수												
없음	2,155	35.9	2,382	35.3	316	4.7	2,175	37.2	2,429	35.3	3,935	37.6
1명	2,578	42.9	2,935	43.5	890	13.2	2,553	43.6	3,120	45.4	4,604	44.0
2명 이상	1,274	21.2	1,425	21.1	5,560	82.2	1,123	19.2	1,330	19.33	1,925	18.4

제4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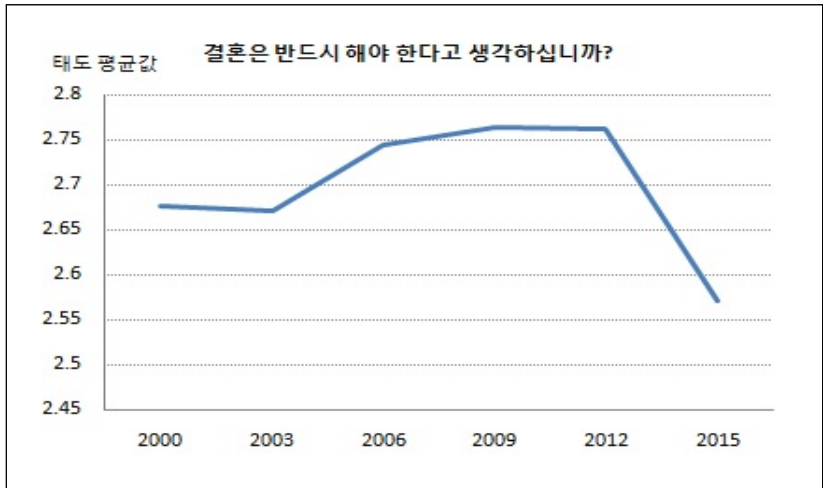
1.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변화

기혼 여성(49세 이하)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4-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12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결혼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사이 늘어나고 있었던 미혼율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과거 결혼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인생의 의무사항이었다. 그렇지만 21세기 이후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 변화와 궤를 같이해서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은 전체 여성 중 상대적으로 결혼의 절대성을 믿는 비율이 높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2000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값이 상승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기혼 여성 사이에서 3년 사이에 결혼의 절대성에 대한 태도는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만약 두 자료 사이 차이가 온전히 기혼 여성들의 태도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면 전체 여성 사이에서 매우 커다란 변화의 전조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혼 여성들은 물론이고 실제 결혼을 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결혼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2018년 조사에서도 유지된다면, 그래서 결혼의 절대성 태도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기혼 여성들이 결혼의 절대성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다면,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은 그야말로 선택사항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림 4-1]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변화



주: 1='하지 않는 편이 좋다', 2='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 3='하는 편이 좋다', 4='반드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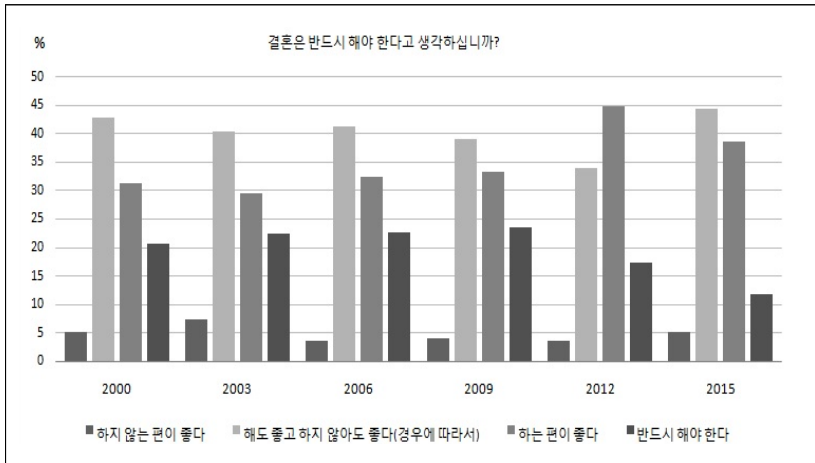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각 항목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4-3〉, [그림 4-2]),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0년에 20.6%에서 2009년에 23.5%로 높아졌다.

〈표 4-3〉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단위: %)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Total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는 편이 좋다	5.08	7.4	3.51	4.04	3.57	5.19	4.8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	42.9	40.51	41.32	39.14	34.08	44.34	40.69
하는 편이 좋다	31.42	29.66	32.47	33.29	44.97	38.67	35.52
반드시 해야 한다	20.6	22.43	22.7	23.52	17.38	11.8	18.95

[그림 4-2] 기혼 여성의 연도별 결혼 가치관 분포



그러나 2012년에 17.3%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기혼 여성 중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비율이 지난 15년간 반 정도 줄어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 또한 연도별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5년에는 44.3%로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2012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5.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가 44.3%로 전체 기혼 여성 중 반 정도는 결혼을 꼭 경험해야 할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과 양육 등 가족적 책임 증가를 부르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 결혼은 여성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서막에 해당한다. 때문에 결혼에 대한 거부는 크게 보아서 ‘여성의 삶’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앞에서 결혼에 대한 거부 정도는 출산력 약화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결혼에 대한 미온적 태도

의 확대는 거듭되는 출산력 약화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결혼이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여성의 삶’으로 들어가는 계기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결혼에 대한 거부는 곧 전통적 삶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중심적 그리고 집단주의적 사고를 거부하고 개인적 선호를 강조하는 제2차 인구변천 이론과 궤를 같이한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직업, 취미, 봉사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삶의 의의를 찾으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 추구가 방해받을 수 있는 출산을 기피하고 이러한 경향이 최근 인구변천의 핵심적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이러한 주장이 지적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지 모른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결혼의 절대성에 대한 급격한 저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2.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 가치관

이전 연구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는 학력이나 연령 등 인구학적 변수의 변화로부터도 연유할 수 있다. 특정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각기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아도 집단 내 평균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관찰했던 15년간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관찰해야 한다.

여기서는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이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관 변화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표 4-4>에 제시하였다. 결혼 가치관에 대한 각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2000년을 준거집단으로 보면 2003년은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지만 2006년, 2009년, 2012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부호는 양의 값을 갖고 있다. 즉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응답자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해도 여전히 기준 연도에 비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이러한 경향과 달리 2015년 현재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준거 연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부호는 음의 값을 갖고 있다. 앞에서 관찰되었던 급작스러운 변화가 연령, 학력, 취업, 소득 등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태도에서 큰 변화가 확인된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은 결혼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남편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아들의 수가 많을수록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결혼 가치관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기혼 여성들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3년 이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 결혼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혼인을 감소와 증가하는 만혼화의 영향으로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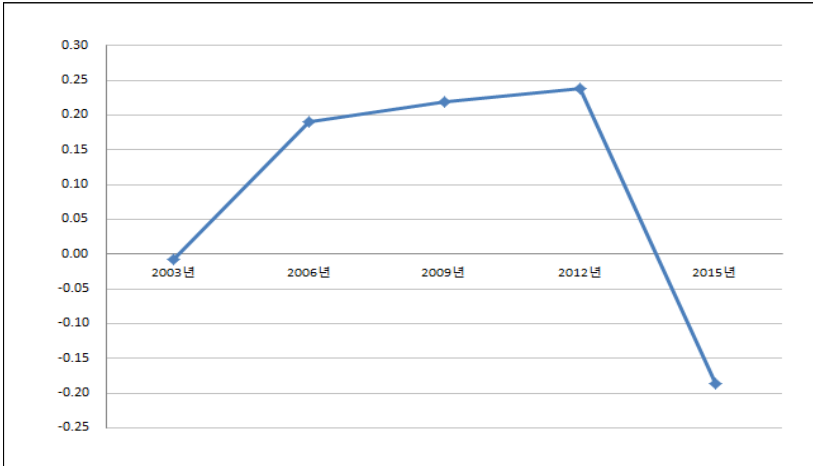
〈표 4-4〉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전체

	Coef.	S. E.
연도(vs. 2000년)		
2003년	-0.008	0.03
2006년	0.190 ***	0.04
2009년	0.219 ***	0.04
2012년	0.237 ***	0.03
2015년	-0.187 ***	0.03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31 ***	0.04
35~39세	-0.273 ***	0.05
40세 이상	-0.087	0.05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388 ***	0.04
2년제 대학교	-0.309 ***	0.05
4년제 대학교 이상	-0.308 ***	0.05
여성의 취업 여부	0.073 ***	0.02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057	0.05
35~39세	-0.080	0.05
40세 이상	-0.016	0.06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11	0.04
2년제 대학교	0.112 *	0.05
4년제 대학교 이상	0.189 ***	0.05
남편의 취업 여부	0.171 ***	0.05
가구 소득	0.000	0.00
자녀수(vs 없음)		
아들의 수	0.053 ***	0.01
딸의 수	-0.024	0.01

* p<.05, ** p<.01, *** p<.001

위 표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표준화 계수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3]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회귀분석에서 연도별 계수 변화



위 그림은 아무런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그림 4-1]보다 연도에 따른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의 변화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2003년에서 2006년까지의 상승도 두드러진다. 아마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전체적으로 지난 15년간 기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급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표 4-5〉는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 모두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에 있어 취업 주부의 경우 20~30대와 달리 40대의 경우 그 효과는 감소한다. 또한 남편의 취업 유무와 자녀의 성별이 아들이나 경우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 두 집단 모두 결혼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남편 연령은 취업 주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의 시계열 변화 추적을 집단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먼저, 두 집단 모두 2003년 이후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점차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2015년 현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상은 앞에서 살펴본 전체 기혼 여성의 변화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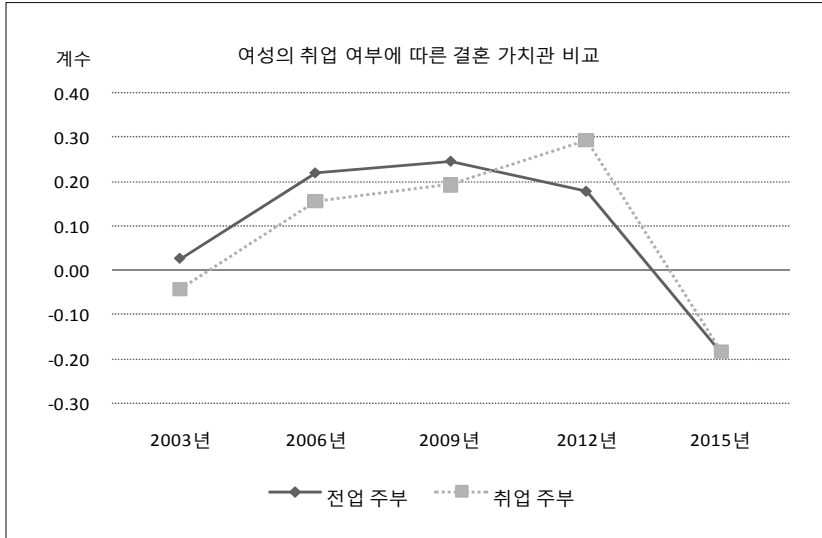
그러나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의 결혼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결혼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취업 주부와 달리 전업 주부가 높지만, 2012년 이후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이와 달리 취업 주부의 경우 2003년 이후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경향은 2012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업 주부보다는 취업 주부가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결혼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2012년에는 취업 여성들이 전업 주부들보다 더 결혼의 절대성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3년 후 그들의 생각은 전업 주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표 4-5〉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취업 여부

	전업 주부		취업 주부	
	Coef.	S.E.	Coef.	S.E.
연도(vs. 2000년)				
2003년	0.026	0.05	-0.042	0.05
2006년	0.219 ***	0.05	0.156 **	0.05
2009년	0.245 ***	0.05	0.194 ***	0.05
2012년	0.177 ***	0.05	0.295 ***	0.05
2015년	-0.185 ***	0.05	-0.182 ***	0.05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26 ***	0.05	-0.266 ***	0.06
35~39세	-0.275 ***	0.06	-0.309 ***	0.07
40세 이상	-0.009	0.07	-0.191 **	0.07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319 ***	0.06	-0.446 ***	0.05
2년제 대학교	-0.249 ***	0.07	-0.362 ***	0.07
4년제 대학교 이상	-0.232 ***	0.07	-0.379 ***	0.06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048	0.06	-0.186 *	0.08
35~39세	0.050	0.07	-0.238 **	0.08
40세 이상	0.084	0.08	-0.141	0.08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37	0.07	0.049	0.05
2년제 대학교	0.093	0.08	0.117	0.07
4년제 대학교 이상	0.148	0.07	0.215 ***	0.06
남편의 취업 여부	0.194 *	0.08	0.162 **	0.06
자녀 수(vs 없음)				
아들의 수	0.056 **	0.02	0.057 **	0.02
딸의 수	-0.029	0.02	-0.011	0.02
가구소득	0.000	0.00	0.000	0.00

* p<.05, ** p<.01, *** p<.001

[그림 4-4]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 가치관 변화



〈표 4-6〉은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 수에 따라 각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결혼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는 자녀 수에 따라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자녀가 0명, 1명, 2명인 경우 결혼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결혼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기혼 여성의 취업 유무 또한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인 경우 결혼 가치관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남편의 취업 유무는 다른 집단과 달리 자녀가 1명인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기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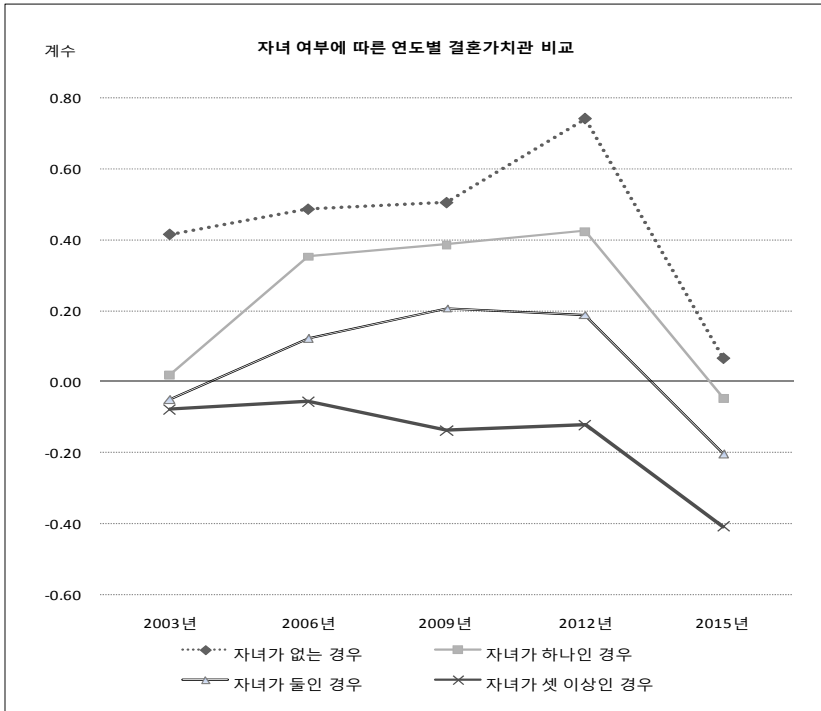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하나인 경우		자녀가 둘인 경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연도(vs. 2000년)								
2003년	0.415 ***	0.13	0.020	0.08	-0.051	0.05	-0.078	0.08
2006년	0.486 ***	0.13	0.352 ***	0.08	0.121 **	0.05	-0.056	0.09
2009년	0.504 ***	0.13	0.385 ***	0.08	0.207 ***	0.05	-0.137	0.10
2012년	0.741 ***	0.13	0.424 ***	0.08	0.189 ***	0.05	-0.122	0.09
2015년	0.067	0.12	-0.047	0.07	-0.204 ***	0.04	-0.407 ***	0.09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81 **	0.09	-0.211 ***	0.06	-0.035	0.07	-0.176	0.20
35~39세	-0.708 ***	0.13	-0.271 ***	0.08	-0.043	0.07	-0.024	0.21
40세 이상	-0.673 ***	0.16	-0.249 **	0.09	0.187 *	0.08	0.161	0.21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417	0.18	-0.503 ***	0.10	-0.284 ***	0.05	-0.351 ***	0.09
2년제 대학교	-0.264	0.20	-0.393 ***	0.11	-0.247 ***	0.07	-0.225	0.12
4년제 대학교 이상	-0.334	0.20	-0.432 ***	0.11	-0.230 ***	0.06	-0.189	0.11
여성의 취업 여부	0.030	0.07	0.089 *	0.04	0.060 *	0.02	-0.009	0.05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00 *	0.09	0.100	0.08	0.006	0.10	0.206	0.27
35~39세	-0.037	0.12	-0.027	0.09	0.039	0.10	0.139	0.26
40세 이상	-0.079	0.15	0.110	0.10	0.072	0.10	0.170	0.26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69	0.17	0.132	0.10	-0.023	0.06	0.009	0.09
2년제 대학교	0.070	0.19	0.102	0.11	0.109	0.07	0.076	0.12
4년제 대학교 이상	0.122	0.18	0.224 *	0.11	0.179 **	0.06	0.123	0.11
남편의 취업 여부	-0.062	0.16	0.381 ***	0.11	0.123	0.07	0.213	0.12
가구소득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 p<.05, ** p<.01, *** p<.001

[그림 4-5]는 자녀 수에 따라 결혼 가치관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회귀 분석에 대한 시계열적 결과를 보여 준다. 결혼 가치관 변화는 자녀 수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가 없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이다. 앞서 살펴본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에 비해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더욱 커보인다. 이러한 점은 결혼은 그 이후 계속되는 출산과 급격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각 집단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결혼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각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 집단 모두 2012년 이후로 이러한 태도는 감소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와 달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과 달리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전체 기혼 여성의 변화와 가장 닮은 모습을 보여 주는 집단은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다. 아마도 가장 변화를 많이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일 것이다. 반면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매년 보여 주는 평균값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어머니들은 15년간 지속적으로 결혼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5] 기혼 여성의 자녀 수에 따른 결혼 가치관 변화



제5절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1.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 가치관 변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에 대한 태도가 출산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자녀에 대한 태도가 21세기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그림 4-6]은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 준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2015년에 다시 높아졌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 따르면 대체로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다른 나라 여성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감소 폭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자녀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래서 2000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지난 15년간 자녀에 대한 태도는 왜 이렇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한 가지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을 구성하는 49세 이하 기혼 여성들의 특징이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미 지적인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변화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에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매 년의 평균값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자녀의 의미이다. 자녀가 일생에서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중요성은 양과 질로 발현될 수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계획할 수 있고 동시에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믿을 수 있다. 만약 후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는 남

들 못지않게 또는 남들보다 더욱 자녀를 나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해 자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삶에서 자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문항을 응답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으로 15년간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림 4-6]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 가치관 변화



주: 1='없어도 상관없다', 2='있는 것이 더 좋다', 3='꼭 필요하다'

자녀 가치관 문항에 대한 각 항목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4-7>과 [그림 4-7]과 같다. '결혼하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있는 것이 더 좋다', '꼭 필요하다'라는 자녀 필요성에 대해 2003년 87.9%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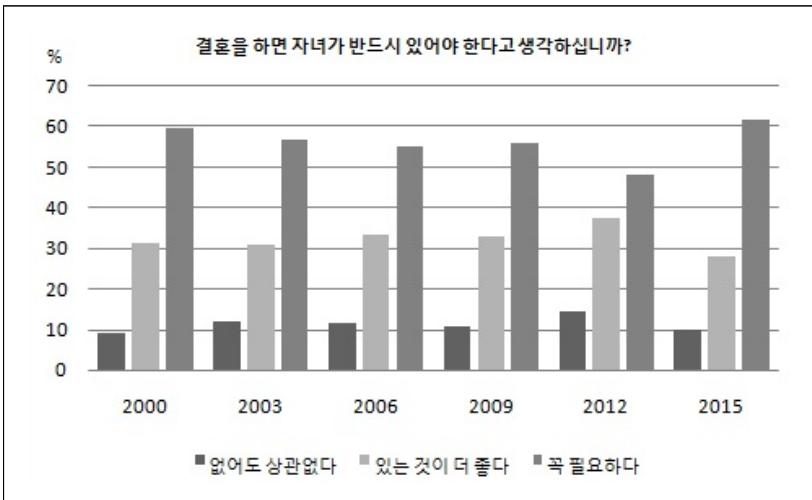
서 2009년 89.2%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2012년 85.6%로 감소하다 2015년에 90.0%로 다시 증가했다. 이와 달리 ‘자녀가 없어도 상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10.8%에서 2012년 14.4%까지 높게 나타났다.

〈표 4-7〉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단위: %)

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Total
결혼을 하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상관없다	9.11	12.06	11.53	10.84	14.41	9.97	11.26
있는 것이 더 좋다	31.1	31	33.27	33.01	37.47	28.15	31.99
꼭 필요하다	59.79	56.94	55.21	56.15	48.12	61.89	56.74

〔그림 4-7〕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 가치관 분포



2. 49세 이하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녀 가치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5년간 가치관의 변화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해야 한다.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과 자녀 가치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연도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녀 가치관 변화의 시계열적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4-8>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연도별 효과를 보면 [그림 4-8]과 달리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투입하자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2003년 이후로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증가 및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2015년에는 자녀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투입하자 기혼 여성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한 기혼 여성은 전업 주부와 달리 자녀 가치관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의 취업 유무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 자녀 가치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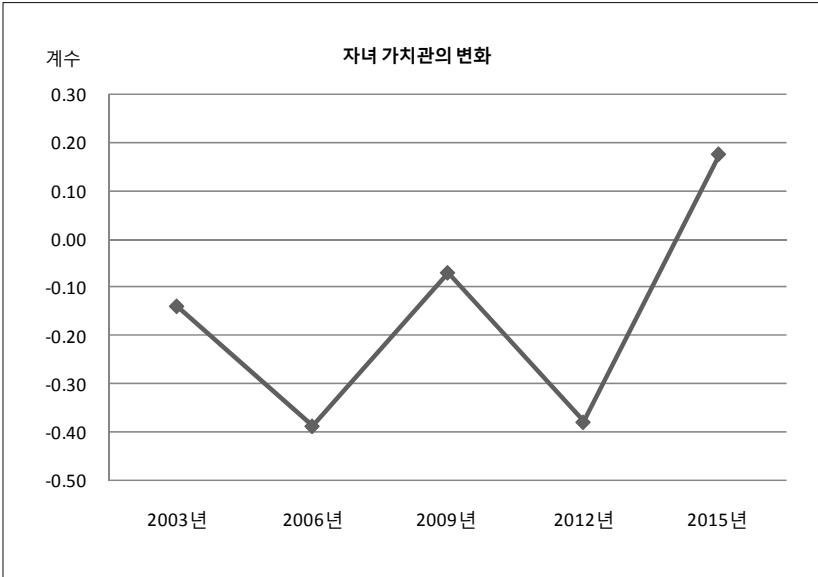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그림 4-8]).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2009년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2003년과 2006년까지 자녀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매우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표 4-8〉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전체

	Coef.	S.E.
연도(vs. 2000년)		
2003년	-0.139 ***	0.04
2006년	-0.388 ***	0.04
2009년	-0.070	0.04
2012년	-0.380 ***	0.04
2015년	0.176 ***	0.04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55 ***	0.04
35~39세	-0.343 ***	0.05
40세 이상	-0.311 ***	0.05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200 ***	0.04
2년제 대학교	-0.190 ***	0.05
4년제 대학교 이상	-0.321 ***	0.05
여성의 취업 여부	0.052 **	0.02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029	0.05
35~39세	-0.045	0.06
40세 이상	-0.025	0.06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10	0.04
2년제 대학교	0.064	0.05
4년제 대학교 이상	0.057	0.05
남편의 취업 여부	0.184 ***	0.05
가구소득	0.000	0.00
자녀수(vs 없음)		
아들의 수	0.299 ***	0.02
딸의 수	0.269 ***	0.02

* p<.05, ** p<.01, *** p<.001

[그림 4-8]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회귀분석에서 연도별 계수 변화



위 그림은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이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에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는 꼭 있어야 하지만 자녀는 곧 엄청난 부담과 책임이 뒤따른다. 더 이상 한국 어머니들은 사람들은 각자 먹을 것은 타고 태어난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그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믿는다. 자녀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녀는 큰 부담이라는 양면성은 위 그림에서 보이는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4-9〉는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각 집단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각 연도별 자녀 가치관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전업주부와 취업 주부 모두 각 연도별로 자녀 가치관에 대한 부정적 및 긍정

적 태도의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투입하자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가치관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전업 주부와 달리 취업 주부에서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기혼 여성의 취업 유무에 따른 자녀 가치관 변화를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9]와 같다.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 모두 각 연도별로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및 긍정적 태도를 다양하게 보였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은 취업 주부에 비해 전업 주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변화는 2012년 취업 주부가 높았고, 2015년에는 자녀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취업 유무에 따른 자녀 가치관 태도 변화는 각 집단마다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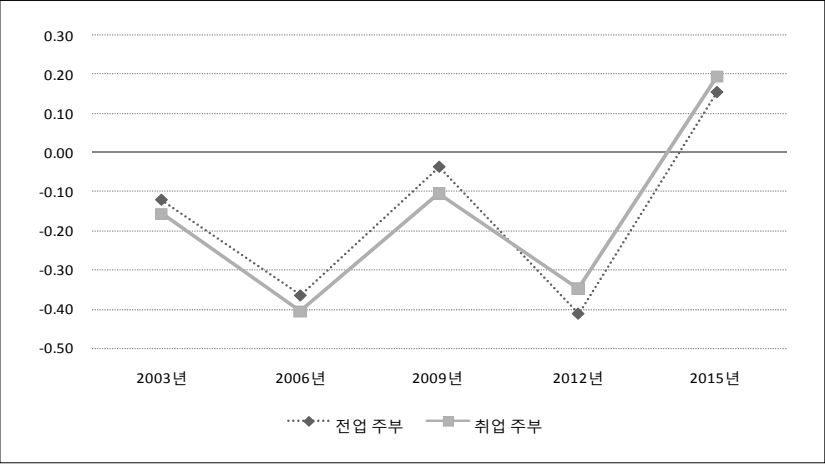
〈표 4-9〉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취업 여부

	전업 주부		취업 주부	
	Coef.	S.E.	Coef.	S.E.
연도(vs. 2000년)				
2003년	-0.121 *	0.05	-0.157 **	0.05
2006년	-0.366 ***	0.05	-0.405 ***	0.06
2009년	-0.037	0.05	-0.104	0.06
2012년	-0.413 ***	0.05	-0.347 ***	0.05
2015년	0.154 ***	0.05	0.194 ***	0.05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265 ***	0.05	-0.241 ***	0.07
35~39세	-0.309 ***	0.06	-0.393 ***	0.08
40세 이상	-0.258 ***	0.07	-0.382 ***	0.08

	전업 주부		취업 주부	
	Coef.	S.E.	Coef.	S.E.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132 *	0.06	-0.253 ***	0.06
2년제 대학교	-0.102	0.08	-0.267 ***	0.07
4년제 대학교 이상	-0.252 ***	0.07	-0.382 ***	0.07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127	0.07	-0.107	0.08
35~39세	0.016	0.08	-0.122	0.09
40세 이상	0.026	0.08	-0.088	0.09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26	0.07	0.011	0.06
2년제 대학교	0.077	0.08	0.066	0.07
4년제 대학교 이상	0.054	0.07	0.074	0.06
남편의 취업 여부	0.206 *	0.08	0.164 *	0.07
가구소득	0.000	0.00	0.000	0.00
자녀수(vs 없음)				
아들의 수	0.256 ***	0.02	0.339 ***	0.02
딸의 수	0.228 ***	0.02	0.308 ***	0.02

* p<.05, ** p<.01, *** p<.001

[그림 4-9]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 가치관 변화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녀 가치관 변화를 자녀 수에 따라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4-10〉). 먼저, 연도별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자녀 수 각 집단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2000년을 기준 집단으로 연도별로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각 집단 모두 2015년에는 자녀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고, 그 효과는 자녀가 둘인 집단의 경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거나 하나 혹은 둘인 경우 기혼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가치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남편의 연령에 따라 집단별로 다양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남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가치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나, 자녀가 1명인 경우 남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필요성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취업은 다른 집단과 달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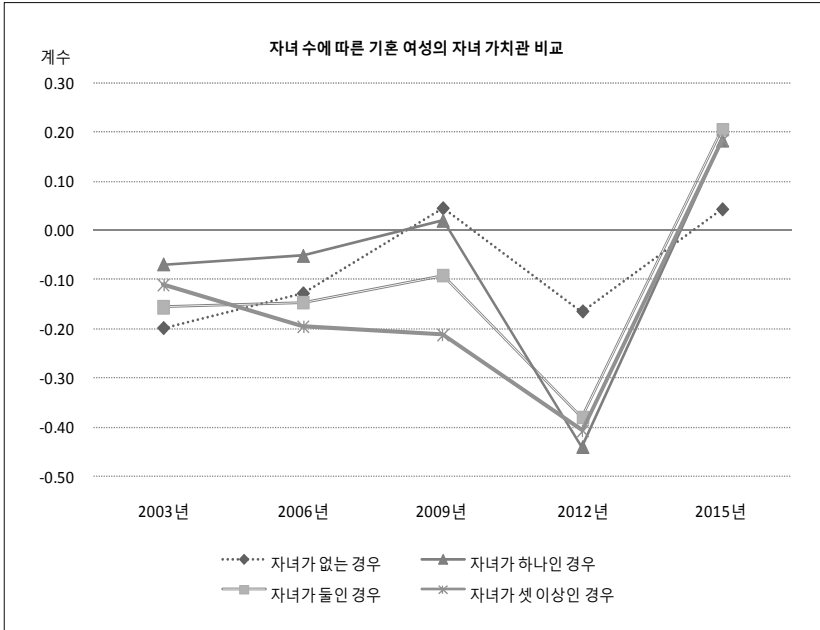
[그림 4-10]에서 자녀 수에 따른 집단별 자녀 가치관 시계열적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인다. 각 집단 모두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필요하다’는 자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나, 2012년에는 다른 집단과 달리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자녀 수에 따라 각 집단 모두 자녀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자녀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경우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기혼 여성의 자녀 가치관 변화: 자녀 수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하나인 경우		자녀가 둘인 경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연도(vs. 2000년)								
2003년	-0.198	0.13	-0.069	0.08	-0.156 ***	0.05	-0.111	0.09
2006년	-0.128	0.13	-0.052	0.08	-0.147 **	0.05	-0.195	0.10
2009년	0.044	0.13	0.020	0.08	-0.091	0.05	-0.213 *	0.11
2012년	-0.164	0.13	-0.441 ***	0.08	-0.379 ***	0.05	-0.407 ***	0.10
2015년	0.042	0.12	0.183 *	0.07	0.204 ***	0.05	0.183	0.10
여성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380 ***	0.09	-0.180 **	0.07	-0.207 **	0.08	0.137	0.22
35~39세	-0.870 ***	0.13	-0.356 ***	0.09	-0.222 **	0.08	0.155	0.23
40세 이상	-1.017 ***	0.16	-0.404 ***	0.10	-0.174 *	0.08	0.177	0.23
여성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638 ***	0.18	-0.161	0.10	-0.183 ***	0.06	-0.173	0.10
2년제 대학교	-0.523 **	0.20	-0.156	0.12	-0.174 *	0.07	-0.356 **	0.14
4년제 대학교 이상	-0.669 ***	0.20	-0.304 **	0.12	-0.311 ***	0.07	-0.302 *	0.13
여성의 취업 여부	-0.191 **	0.07	0.086 *	0.04	0.064 *	0.03	0.111	0.06
남편의 연령(vs. 29세 이하)								
30~34세	-0.049	0.10	0.122	0.08	0.044	0.11	-0.032	0.31
35~39세	-0.156	0.13	0.145	0.09	-0.072	0.11	-0.230	0.29
40세 이상	-0.342 *	0.16	0.289 **	0.10	-0.095	0.11	-0.188	0.29
남편의 학력(vs.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135	0.17	0.079	0.10	0.045	0.06	-0.109	0.10
2년제 대학교	-0.208	0.19	0.035	0.12	0.118	0.07	0.085	0.14
4년제 대학교 이상	-0.138	0.18	0.025	0.11	0.105	0.07	-0.022	0.12
남편의 취업 여부	0.096	0.16	0.257 **	0.11	0.129	0.07	0.313 *	0.13
가구소득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 p<.05, ** p<.01, *** p<.001

[그림 4-10] 기혼 여성의 자녀 수에 따른 자녀 가치관 변화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함의

제1절 연구의 요약

1. 연구의 정당성

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실시 이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저출산 현상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많은 인구학자들은 물론이고 정책집행자들도 지난 10년간의 행정적 노력이 너무 미시적 입장에 치우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인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비를 낮추는 정책들은 자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과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사회적 집단적 차원에서 결혼, 자녀, 직업 등 인생의 행로에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인구학적 행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최근의 저출산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하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는 정책으로는 목표로 하는 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출산행위를 미시적 시각과 함께 거시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산을 계획된 행위이론과 제2차 인구변천이론이라는 미시적-거시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뿐 아니라 관련되는 부분-예를 들어, 취업이나 성역할 등-에 대한 가치관 역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가치관들이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 초반기에 보이고 있는 사회적 변천 양상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한국은 최근에야 이러한 입장에서 출산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확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기는 난망한 현실이었다. 다행히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출산과 가치관과의 관계, 가치관의 변화 양상 등을 다뤄 왔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들이 임신 및 출산을 바로 다루지 못하고 출산계획 등 주관적 입장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더군다나 두 가지 주관적 측면-특정 영역에 대한 가치관과 앞으로 아이를 가질지 여부-을 횡단면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명확한 인과관계 설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2. 연구의 결과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한다.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 항목이 있는 3차에서 가치관과 주요한 통제변수들을 가져오고 3차에서 5차까지 4년간 임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가임기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델을 측정하고 또 취업 여부와 자녀의 수에 따라 이 기혼 여성들을 구분하여 같은 모델을 측정한다. 취업과 자녀에 따른 구분은 각기 다른 사정에 따라 가치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관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 성역할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전체 가임기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수입의 관리에 대한 태도가 향후 임신 여부와 통계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 삶에 대한 태도를 대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 세대 여성들처럼 결혼과 자녀를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할수록 이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수입 관리의 태도는 가족중심적 사고가 아닌 개인주의적 삶의 지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혼을 했더라도 개인의 취향, 선호, 욕구, 실현은 현재 세대들이 과거 세대들에 비해 더욱 중시한다. 수입의 관리는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니 부부 또는 가족들과 다른 차원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기혼 여성들이 가족과 개인이라는 중요한 중심축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 여부가 이후 임신 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분야의 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취업과 자녀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에 따라 살펴봤을 때 가장 주목을 끄는 집단이 자녀가 한 명 있는 기혼 여성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가장 주요한 정책적 타깃 집단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자녀가 1명 있는 기혼 여성들에게 수입 관리에 대한 항목과 자녀 결혼 자금 책임에 대한 항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관리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적 삶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자녀 결혼 자금 책임은 말 그대로 자녀 양육 부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요한 점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문항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결혼 자금 책임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녀 출산의 어려움으로 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면서 실제 예를 드는 것은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 부담이다. 그렇지만 어쩌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자녀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닐 수 있다. 반면 결혼에 대한 태도는 먼

저 개인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할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지원 금액이 신혼집을 포함,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항을 물어본 이 자료에는 위 연구에서 출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된 결혼과 자녀에 대한 문항이 들어 있다.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21세기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가임기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조금씩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쪽으로 평균값이 상승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런 경향은 21세기 이후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반대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믿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결혼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가임기 기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크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결혼은 그야말로 선택이라는 태도가 미혼 여성들뿐 아니라 기혼 여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초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증거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도 자녀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급격하게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방향으로 흐른 반면 자녀에 대한 태도는 5번의 조사에 걸쳐

자 걸음을 보이면서 명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자녀의 질과 양에 대한 구분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경제학자 베커의 논의 이후 자녀에 대한 중요성은 양과 질로 분리돼서 발현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자녀가 중요하면 많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식에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질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녀를 굳이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녀를 중시하는 태도는 자녀를 많이 낳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녀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려는 의도를 낳을 수도 있다. 한국 여성들에게 자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낳아 키우고 싶어 하는 여성들도 많다.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상황에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녀의 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한국 기혼 여성들에게 남아 있으며 본 연구에서 관찰한 발견과 연결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경향은 취업 여부와 자녀의 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하위 집단에서도 발견되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1. 학문적 함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계획된 행위 이론(planned behavior)과 제2차 인구변천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계획된 행위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선호 및 태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한다. 이러한 이론을 출산 행위에 적용하면 자녀에 따른 태도, 즉 삶에서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자녀를 얼마나 낳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의 과정들-예를 들어 결혼이나 취업 등-에 대한 선호가 있으면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예를 들어 결혼을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또는 결혼 후에도 커리어를 중시할지-이에 따라 얼마나 언제 아이를 낳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의 사회적 확대버전이 바로 제2차 인구변천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 여러 나라에 걸쳐 삶의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개인주의적 입장을 중시하게 되고 이러한 선호에 따라 결혼, 출산, 취업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벌어지는 다양한 인구학적 결과들-예를 들어 결혼을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고, 결혼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동거를 선택하게 되고, 아이를 되도록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게 되고, 결혼에 불만이 있으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을 하게 되고-이 바로 이러한 전체 사회적 차원의 가치관 변화에 연유한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패널과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앞서 살펴본 두 이론에 의한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도 출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약간 다른 경향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성들의 가치관이 출산 행위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그 가치관은 사회적 차원에서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이 예상하는 바와 똑같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들어와서 확연하게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동시에 자녀에 대한 태도는 매우 모호하다. 이러한 점은 역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양의 이론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한국의 경우 가족 관련 다양한 태도들은 21세기 들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변모 양상은 외국, 그 중에서도 서양 국가들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가치관의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개개의 항목에 머무르지 말고 관련 항목을 많이 같이 사용하여 거시적 입장에서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드러냈듯이 결혼에 대한 태도는 개인주의적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증가했지만 동거를 용인하는 태도는 이혼과 보조를 맞춰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만약 이렇게 이런 저런 항목에서 다른 변화 양상을 겪는다면 우리는 ‘개인주의화’ 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은 인구학적 함의를 넘어 서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이제는 정책적으로 가치관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이다.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에 비해 정책의 대상을 출산에만 맞추지 않고 신혼집 지원 등 결혼 과정까지 포괄하는 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그뿐 아니라 가족, 결혼, 자녀 등 포괄적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무리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자녀 자체에 대해 별다른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출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우리는 서양의 몇몇 나라에서 벌어지는 자녀에 대한 비중 약화 현상까지 관찰되지는 않고 있다. 어쩌면 자녀에 대한 입

장이 조정기를 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결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미 결혼을 한 기혼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욱 그러하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서 별다른 의의와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백가지의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출산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자녀를 한 명 갖고 있는 기혼 여성들은 저출산 정책당국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분석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 부담은 그 다음 자녀 출산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더 나중이고 그렇지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결혼식 지원에 대한 태도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사교육 경감에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어찌면 더욱 신경써야 할 사항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들어가는 결혼 지원이라든지 생활비 지원일지 모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환영받고 있는 소위 ‘작은 결혼식’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여 결혼식 문화 자체를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결혼식 행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시금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결혼식이 부모 또는 가족의 위세를 나타내는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 결혼식이 결혼 본연의 의의를 갖게 되길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단순히 출산 영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찌면 사회적 모순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일 수 있다.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관심을 더 이상 출산에만 한정하지 말고 삶의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

해야 할 것이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출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가지 삶의 궤적과 상관이 있다. 때문에 시각을 확대해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살펴보는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진우.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박종서, 김유경, 김연우, 최영준, 손창균, 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철. (2011).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KDI FOCUS*, 제 11호, pp.1-8.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pp.97-116.
- 김진옥, 고은주.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 국가비교: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사회복지정책*, 41(2), pp.185-212.
- 김현숙. (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pp.107-137.
- 민현주. (2011).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생애사건 효과분석. *한국인구학*, 34(1), pp.53-72.
- 서정연, 김한곤. (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인구학*, 38(3), pp.1-24.
- 신인철. (2009).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효과분석. *한국인구학*, 32(2), pp.59-85.
- 이민아. (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47(2), pp.143-176.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pp.95-140.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pp.39-71.
- 이진숙, 최원석. (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 일가족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pp.5-30.
- 임현주, 이대균, 최항준. (2011). 부부특성, 출산관련 정서,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탐색-구조방정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5), pp.183-202.
- 주재선, 문유경, 김영택, 김영란, 송치선, 임연규, 이병훈, 이윤석, 강은수. (2015). 2015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개발원. (2015). 한국의 사회동향 2015.
- 통계청. (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6. 6.29.
- 통계청. (2015). 2015년 출생·사망통계. 보도자료. 2016.2.24.
- 통계청. (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6.6.28.
- 통계청. (2016). 2015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16. 8. 24.
- 통계청. (2016).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1999-2014). 보도자료. 2016.4.20.
- 한경혜, 장미나. (2009). 기혼남녀근로자의 일·가족 균형과 관련요인: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pp.85-115.
- Ahrens, C. J. C., & Ryff, C. D. (2006). Multiple roles and well-being: Socio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moderators. *Sex Roles*, 55: pp.801-815.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Milton-Keynes,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Chicago, IL: Dorsey Press.
- Ajzen, I.,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lwin, D. F. (1988). From obedience to autonomy: Changes in traits desired in children, 1924-1978. *Public Opinion Quarterly*, 52(1): pp.33-52.
- Alwin, D. F. (1996). From childbearing to childrearing: The link

- between declines in fertility and chang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pp.176-196.
- Alwin, D. F., Scott, J. (1996). Attitude change: Its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using longitudinal surveys. In: Taylor B and Thomson K (eds). *Understanding Change in Social Attitudes*. Aldershot: Dartmouth, pp.75-106.
- Axinn, W. G., Barber, J. S. (2001). Mass education and fertility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481-505.
- Bahr, H. M., Mitchell, C., Li, X., Walker, A., Sucher, K. (2004). Trends in family space/time, conflict, and solidarity: Middletown 1924-1999. *City and Community*, 3(3): pp.263-291.
- Barber, J. S. (2011). Ideational Influences o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ttitudes Toward Childbearing and Competing Alternativ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4(2): pp.101-127.
- Blossfeld, HP. and Hakim, C. (1997). *Between Equalization and Margin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lzendahl, C. I., Myers, D. J. (2004). Feminist attitudes and support for gender equality: Opinion change in women and men, 1974-1998. *Social Forces*, 83(2): pp.759-790.
- Brewster, K. L., Padavic, I. (2000). Change in gender-ideology, 1977-1996: The contributions of intracohort change and population turnov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pp.477-487.
- Brooks, C., Bolzendahl, C. (2004). The transformation of US gender role attitudes: Cohort replacement, socio-structural change, and ideological learning. *Social Science Research*, 33: pp.106-133.
- Coale, A., Banister, J. (1994). Five decades of missing females in China. *Demography*, 31(3): pp.459-479.
- Cohen, P., Feng, W. (2009). Market and gender pay equity: have

- Chinese reforms narrowed the gap? In: Davis, Deborah, Feng, Wang (Eds.), *Creating Wealth and Poverty in Post-Socialist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37-53.
- Cooper, J., Croyle, R. T. (1984).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pp.395-426.
- Cunningham, M., Beutel, AM., Barber, JS., Thornton, A. (2005).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s about gender and social contexts during young adulthood. *Social Science Research*, 34: pp.862-892.
- Danigelis, NL., Hardy, M., Cutler, SJ. (2007). Population aging, intracohort aging and sociopolitical 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2: pp.812-830.
- Davis, S.N., Greenstein, T. N. (2009). Gender ideology: component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pp.87-105.
- Farrer, J. (2002). *Opening Up: Youth Sex Culture and Market Reform in Shanghai*.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hicago
- Firebaugh, G. (1989). Methods for estimating cohort replacement effects. In: Clogg CC (ed.) *Sociological Methodology*. Oxford: Basil Blackwell, pp.243-262.
- Fishbein, M.,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uilmoto, C. Z. (2009). The sex ratio transition in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3): pp.519-549.
- Gupta, M.D., Jian, Z., Li, B., Xie, Z., Chung, WJ., Bae, HO. (2003). Why is son preference so persistent in east and south Asia? A cross-country study of China,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0 (2): pp.153-187.
- Hakim, C. (2000).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21st Century: Preference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kim, C. (2002). Lifestyle preferences as determinants of women's differentiated labor market careers. *Work and Occupations*, 29: pp.428-459.
- Hertel, B. R., Hughes, M. (1987). Religious affiliation, attendance, and support for 'pro-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65: pp.858-882.
- Honig, E., Hershatter, G. (1988). *Personal Voices: Chinese Women in the 1980'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 Hyman, H. H., Wright, C. R. (1979). *Education's Lasting Influence on Val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nglehart, R. (1981). Post-materialism in an environment of insecu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pp.880-900.
- Jackson, P. B. (1997). Role occupancy and minority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38: 237-255.
- Jones, G. W. (2007).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3): pp.453-478.
- Kalmijn, M. (2005). Attitude alignment in marriage and cohabitation: The case of sex-role attitudes. *Personal Relationships*, 12: pp.521-535.
- Kalmijn, M., Kraaykamp, G. (2007). Social stratification and attit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class and education in Europ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8: pp.547-576.
- Kiecolt, K. J., Acock, A. C. (1988). The long-term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gender-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pp.709-717.

- Kroska, A., Elman, C. (2009). Change in attitudes about employed mothers: Exposure, interests and gender ideology of discrepancies. *Social Science Research*, 38: pp.366-382.
- Lee, Y. S. (2016). Is Giving or Receiving Psychologically Beneficial to Older Mothers in South Korea?: Importance of Marital Status. *Journal of Women and Aging*, In Press.
- Lesthaeghe, R. (1980). On the social control of human reproduc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6(4): pp.527-548.
- Lesthaeghe, R. (1983). A century of demographic and cultural change in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3): pp.411-435.
- Lesthaeghe, R. (2001).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Recent fertility trends and forecasts in six Western European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IUSSP Seminar 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21-23 March
- Lesthaeghe, Meekers, D. (1986). Value changes and the dimensions of familism in the European communit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3/4): pp.225-268.
- Lesthaeghe, R., Moors, G. (1994). *Living arrangements and parenthood: Do values matter?* VUB Brussels, IPD Working Paper No. 1994-2.
- Lesthaeghe, R., Moors, G. (1996). Living arrangements, socio-economic position and values among young adults: A pattern description for Belgium, France, the Netherlands and West-Germany 1990. In: D. Coleman (Ed.), *Europe's population in the 1990's* (pp. 163-22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sthaeghe, R., Moors, G. (2000). Recent trends in fertility and

- household formation in the industrialized world.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9: pp.121-170.
- Lesthaeghe, R., Moors, G. (2002). Life course transition and value orientations: Selection and adaption. In: R. Lesthaeghe (Ed.), *Meaning and choice: Value orientations and life course decisions* (Vol. 37, pp. 1-44). Den Haag/Brussel: NIDI/CBGS publication.
- Lesthaeghe, R., Surkyn, J. (1988)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1): pp.1-45.
- Lesthaeghe, R., Surkyn, J. (2004). Value orientations and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 in northern, western and southern Europe: An update. *Demographic Research, Special Collection*, 3: pp.45-86.
- Lesthaeghe, R., van de Kaa, D. J. (1986). Twee Demografische Transitiees? (Two Demographic transitions?). 9-24 in: D. J. van de Kaa and R. Lesthaeghe (eds.), *Bevolking: Groei en Krimp*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Deventer, Van Loghum Slaterus.
- Lutz, Wolfgang, Skirbekk, V., Testa, M. R. (2006).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in D. Philipov, A.C. Liefbroer, and F.C. Billari (ed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 pp.167-192.
- Mason, K., Lu, Y-H. (1988). Attitudes toward women's familial roles: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1977-1985. *Gender and Society*, 2: pp.39-57.
- Mason, KO., Czajka, J. L., Arber, S. (1976). Changes in U.S. women's

- sex-role attitudes, 1964-197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pp.573-596.
- Mason, KO., Lu, Y.H. (1988). Attitudes toward women's familial roles: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1977-1985. *Gender and Society*, 2: pp.39- 57.
- Moen, P., Dempster-McClain, D., & Williams, R. M. (1992). Successful aging: A life-course perspective on women's multiple roles and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pp.1612-1638.
- Moen, P., Dempster-McClain, D., Williams, R. M. (1989). Social integration and longevity: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women's roles and resili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pp.635-647.
- Neve, R. (1995). Changes in attitudes toward women's emancipation in the Netherlands over two decades: Unraveling a trend. *Social Science Research*, 24: pp.167-187.
- Pagnini, D. L., Rindfuss, R. R. (1993). The divorce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Changing attitudes and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 pp.331-347.
- Pascarella, ET., and Terenzini, PT. (1991).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 Poortman, AR., van der Lippe, T. (2009). Attitudes toward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 pp.526-541.
- Rindfuss, R. R., Brewster, K. L., Kavee, A. L. (1996). Women, work, and children: Behavioral and attitudinal chang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pp.457-482.
- Rindfuss, R. R., Kim, C.M., Larry, L. B., Noriko, O. T. (2004). Social networks and family change in Japa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pp.838-861.

- Schneider, C. E. (1985). Moral discourse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family law. *Michigan Law Review*, 83(8): pp.1803-1879.
- Schulenberg, et al. (1995). American adolescents' views on family and work: History trends from 1976-1992. In P. Noack, M. Hofer, & J. Youniss (Eds.), *Psychological responses to social change* (pp. 37-64). New York: Walter de Gruyter.
- Scott, J., Alwin, D. F., Braun, M. (1996). Generational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Britain i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Sociology*, 30: pp.471-492.
- Shu, X. (2004). Education and gender egalitarianism: the case of China. *Sociology of Education*, 77: pp.311-336.
- Shu, X. (2005). Marketization and gender segregation in urban China. *Social Science Quarterly*, 86: pp.1299-1323.
- Shu, X., Zhu, Y., Zhang, Z. (2007). Global economy and gender inequalities: the case of the Chinese urban labor market. *Social Science Quarterly*, 88(5): pp.1307-1332.
- Spitze, G., Huber, J. (1980). Changing attitudes toward women's nonfamily roles.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7: pp.317-335.
- Stacey, J. (1983). *Patriarchy and Socialist Revolution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Thornton, A. (1989). Changing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4): pp.873-893.
- Thornton, A., Alwin D. F., Camburn, D. (1983). Causes and consequences of sex-role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pp.211-221.
- Thornton, A., Axinn, W. A., Teachman, J. (1995). The influence of

- educational experiences on cohabitation and marriage in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pp.762-764.
- Thornton, A., Young-DeMarco, L. (2001). Four decades of trends in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The 1960s through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4): pp.1009-1037.
- Van de Kaa, D. J. (1980). Recent trends in fertility in western Europe. In: R. W. Hiorns (Ed.), *Demographic patterns in developed societies*, 55-83. London: Taylor and Francis Ltd.
- van de Kaa, D. J. (199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revisited: Theories and expectations. In: G. C. N. Beets et al. (Eds.), *Population and Family in the Low Countries 1993* (pp.81-126). Lisse: Zwets and Zeitlinger.
- van de Kaa, D.J. (1985). *Van demografisch gedrag tot demografisch perspectief*. pp. 87-119 In: De Toekomst van het Westerse Gezin. Amsterdam etc., Noord-Hollandische Uitgevers Maatschappij.
- Van Gils, W., Kraaykamp, G. (2008). The emergence of dual-earner couples: A longitudinal study of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Sociology*, 23(3): pp.345-366.
- Veroff, J., Douvan, E., Kulka, R. (1981). *The inner American: A self-portrait from 1957 to 1976*. New York: Basic Books.
- Vinokur-Kaplan, D. (1978). To have-or-not have another child: family planning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8: pp.29-46.
- Xie, Y., Hannum, E. (1996). Regional variation in earnings inequality in reform-era urban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 pp.950-992.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